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7. 1. 24.(화) 14:00~17:5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강규형, 안창모,
여홍구, 오용섭, 채금석, 한태식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록

【심의사항】

- | | |
|---|---|
| 1 | 등록문화재 제486호 「운낭자상(雲娘子像)」 1점 국외 반출 허가 |
| 2 | 「찬송가(UNION HYMNAL)」 문화재 등록 |
| 3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문화재 등록 |
| 4 |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문화재 등록 |
| 5 |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주변 현상변경 |
| 6 |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현상변경 |
| 7 |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 현상변경 |
| 8 |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현상변경
및 등록 변경 |
| 9 | 2017년도 근대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

【검토사항】

- | | |
|----|-----------------------------------|
| 10 | 「군산 둔율동 성당」 문화재 등록 검토 |
| 11 | 「제주 한림청장(응포별장)」 문화재 등록 검토 |
| 12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문화재 등록 검토 |
| 13 |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문화재 등록 검토 |
| 14 |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문화재 등록 검토 |
| 15 |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문화재 등록 검토 |

【보고사항】

- | | |
|----|----------------------------|
| 16 | 사적 및 등록 관련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
|----|----------------------------|

심 의 사 항

1. 등록문화재 제486호 「운낭자상(雲娘子像)」 1점 국외 반출 허가

가. 제안사항

- 싱가포르 “한국의 보물: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 전시 출품을 통해 한국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청한 등록문화재 제486호 「운낭자상(雲娘子像)」 1점의 국외반출 허가 사항을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청한 등록문화재 제486호 「운낭자상(雲娘子像)」 1점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심의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 (2)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486호 「운낭자상(雲娘子像)」 1점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3) 신청내용 : 국외반출 허가
 - 반출목적 :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보물 :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Treasures from Korea : Arts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전시
 - 반출대상 국가 : 싱가포르(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 반출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486호 「운낭자상(雲娘子像)」 1점
 - 전시기간 : 2017. 4. 21. ~ 2017. 7. 23.(약 3개월)
 - 반출기간 : 2017. 3. 30. ~ 2017. 8. 23.

라. 근대문화재과 의견

- 국립중앙박물관 자체 상태점검 결과 반출 문화재의 상태는 양호하며,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과의 교환 전시를 통해 상호간 우호 증진 및 문화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청화소상팔경문 팔각연적」 등 보물 3점은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에서 국외반출 허가를 결정하였음.(‘16. 12. 8.)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문화재의 운반과 전시시 문화재 보호에 철저히 할 것)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국외반출 신청 문화재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

허가신청목록		
① 지 정 번 호	등록문화재 제486호	
② 명 칭	운낭자상 (본관11644)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세로 120.5cm, 가로 62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⑥ 유 물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최초로 <엄마와 아기>를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서 근대기 회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 ○ <운낭자상>은 석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1914년에 그린 초상화로, 그림의 주인공은 흥경래의 난(1811년) 때에 가산군수 정시(鄭蓍)의 시신을 거두어 사후에는 열녀각인 평양 의열사(義烈祠)에 제향되었다고 전해지는 의기(義妓) 최연홍(崔蓮紅, 1785~1846)임 	

붙임 : 등록문화재 국외반출 심사 참고자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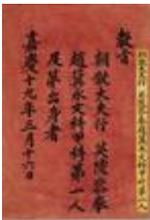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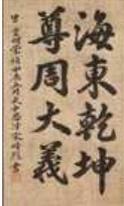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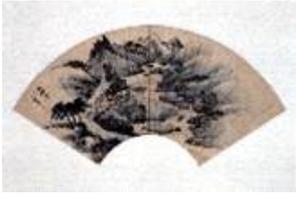
<붙임 : 등록문화재 국외반출 심사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문화재 국외전시 “한국의 보물: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

1. 국외전시 개요

- 전시명: “한국의 보물: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Treasures from Korea: Arts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 전시예정장소 :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특별전시실
- 전시예정기간 : 2017.4.21.~7.23. (약 3개월)
- 대여예정기간 : 2017.3.30.~8.23.
- 전시예정품: 회화, 공예품, 불교미술품 등 120건 248점(등록문화재 1건 1점, 지정문화재 3건 3점 포함)
- 전시구성(안)

순서	대주제	소주제	대표 유물
도입	새로운 시대	1. 옛 왕조, 고려 2. 새로운 왕조의 탄생	
1부	왕실의 권위와 궁중 문화	1. 왕권의 상징	
		2. 왕과 왕비	
		3. 왕실의 예법	

2부	양반 계층의 삶	1. 과거 급제와 관직 생활	  
		2. 시서화 - 양반의 교양	  
		3. 사랑방의 기물	  
3부	자연에서 꽃피운 예술	1. 회화 - 산수화, 화조영모화	    
		2. 도자 - 분청사기, 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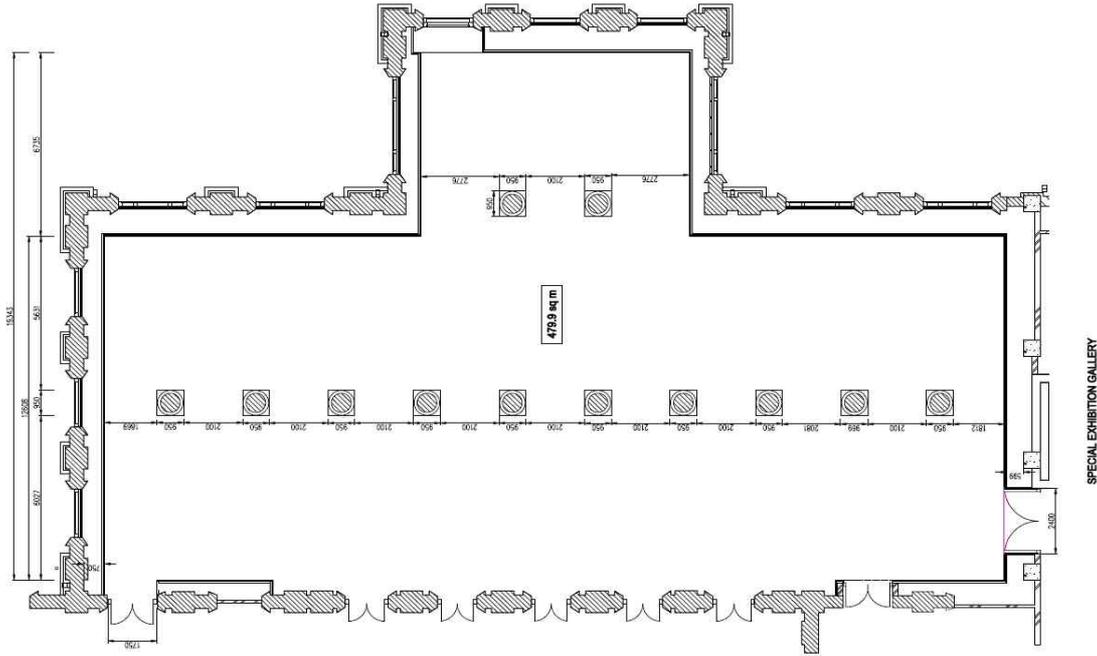
4부	신성한 공간	1. 유교적 가치와 제례	 
		2. 불교와 민간 신앙	
5부	한양의 거리	1. 일상의 풍경	
		2. 목가구와 살림살이	
		3. 의복과 장신구	

2. 전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13년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소장품으로 구성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전에 대한 교환전시
 -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우호 증진 및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
 - 동남아 한류 전파의 거점국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싱가포르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 조선시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시 내용 상 회화, 도자, 서예 분야의 명품 필요

3.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개요 및 전시품 안전관리 방안

- 기관 성격 : 국립박물관 (1993년 설립,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 산하기관)
- 연간 관람객 : 약 80만명 (2011년 기준)
- 특별전시 공간 : 아시아문명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479.9㎡)
 ※ 전시 평면 구성은 협의 예정



아시아문명박물관 특별전시실 평면도



“강희제: 자금성의 보물” 전시연출의 예(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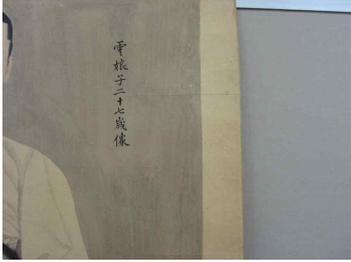
-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 방안 (보안 및 방법)
 - 아시아문명박물관 내 24시간 보안요원 상주
 - 개관 시간동안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 보안요원 배치
 - 전시기간 동안 전시실에 전담 방호인력 배치
 - 건물 내부 및 전시실 내 동작감지기, 감시카메라 운용
 - 전시실 내에서 삼각대 휴대 금지(흉기 또는 파손도구로 전용 방지)
 - 건물 외부 감시카메라 운용 및 전자 보안경보시스템 구비
- 전시실 환경
 - 중앙통제 방식으로 24시간 공조시스템 운영 및 항온항습 관리(온도 23~24℃, 습도 45~60%)
 - 환경에 민감한 전시품의 경우 개별 관리되는 진열장 사용
 - 자외선과 열을 차단하고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시스템 구비

4. 전시품 상태점검, 포장·운송 및 보험 가입

-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직, 보존처리 담당자가 직접 상태점검 후 포장
- 전시품의 포장은 솜포 포장 후 오동나무 상자 격납, 크레이트 격납 순으로 3중 포장하여 이동 중 전시품의 안전성 확보
- 육상 및 항공운송은 문화재 전문 운송회사에서 담당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호송관으로 동행하며 운송업무 진행과정 감독
- 항공운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2차레로 나누어 운송
- 문화재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목록 확정 후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 보험 가입 예정(전위험담보, wall-to-wall)

5. 전시품 상태 자체점검 결과(국립중앙박물관)

- 점검 대상 문화재 : 4건 4점(등록문화재 1건, 보물 3건)
 - 운낭자상 (등록문화재 제486호)
 - 백자청화소상팔경문팔각연적 (보물 제1329호)
 - 서직수 초상 (보물 제1487호)
 - 김정희해서묵소거사자찬 (보물 제1685-1호)
- 점검기간 : 2016.10.31.~11.11.(약 2주간 자체 시행)
- 점검내용 : 국외전시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전시품의 상태 및 취급 시 유의사항 점검
- 점검결과 : 이상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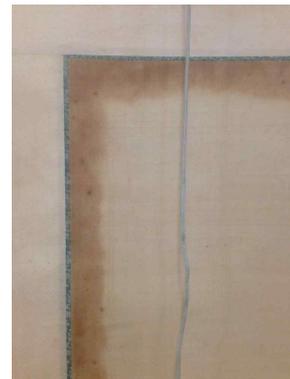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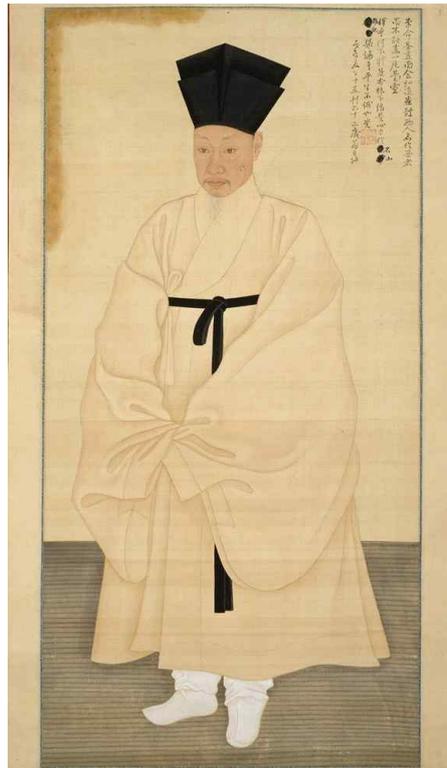
구분	사진 및 현황
<p>운낭자상 (등록문화재 제486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장황부분 일부에 접혀 주름진 곳이 있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운송 및 전시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화면 아래쪽에 종이를 연결한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됨.</p>

백자청화소상팔경문
팔각연적
(보물 제1329호)



파손된 곳 없이 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운송 및 전시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직수 초상
(보물 제1487호)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며 운송 및 전시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화면 좌상단 테두리 일부에 얼룩진 흔적이 있으나, 현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김정희해서목소거사
자찬
(보물 제1685-1호)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운송 및 전시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화면에 반점처럼 보이는 것은 금박을 붙여 장식적인 효과를 낸 것임.

상태점검 모습



2. 「찬송가(UNION HYMNAL)」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찬송가(UNION HYMNAL)」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12.1.)를 거쳐 등록예고('16.12.15.~'17.1.13.)된 「찬송가(UNION HYMNAL)」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송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 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 재 지
찬송가 (UNION HYMNAL)	1권	세로 15.1 × 가로 11.5(cm)	1908년	신활자본	종이 (양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서울특별시 동작 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한국 기독교박물관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목록화(78건),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2.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4.28.)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검토의견 : 통합 찬송가로 대중성이 있음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12.1.) / 원안가결
 - 송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찬송가」를 등록 검토 대상으로 결정, 명칭은 「찬송가(UNION HYMNAL)」로 하기로 함

(4)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 12. 15. ~ '17. 1. 13.(30일간)
-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5)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8.)>

○ ○ ○ ○ 위원

- 1908년에 발행된 합동찬송가인 『찬송가』는 먼저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차원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개신교 찬송가의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 『찬송가』는 이후 감리교의 『신명찬송가』(1931)와 장로교의 『신편찬송가』(1935)로 분리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의 합동찬송가였다. 또 1983년에 발행된 『통일찬송가(unity Hymnal)』의 내용도 1/3이상이 이 『찬송가』에서 가져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하나의 찬미를 부를 수 있게 된 현행 찬송가의 모태가 되는 셈이다.
- 아울러 서양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합동찬송가인 1908년 발행의 초판본 『찬송가』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연구위원

- 한국 최초의 교파연합 찬송가일 뿐만 아니라 숭실대 박물관 소장본은 6만권을 출판한 초판본 중 한 권으로,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 ○ ○ 교수

- 개신교에서는 ‘찬송가’도 성경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 책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찬송가로는 처음으로 교파연합으로 발간된 것이다. 그간 여러 교파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던 여러 찬송가들을 집대성하여 주제에 따라 구분 정리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나마 찬송의 토착화를 위한 과감한 시도 역시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 또한 이 책의 가사가 문학적으로도 인정받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와 깊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교수

- 1908년 간행된 예배곡집이 중판을 거듭하면서 “찬송가”를 개신교 예배악곡들의 범칭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찬송가』의 초판은 한국개신교 한국가창사에서 예배곡집의 확장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 할 것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찬송가」 조사보고서 1부.

「찬송가」 조사보고서

1. 명 칭 : 찬송가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3. 소유자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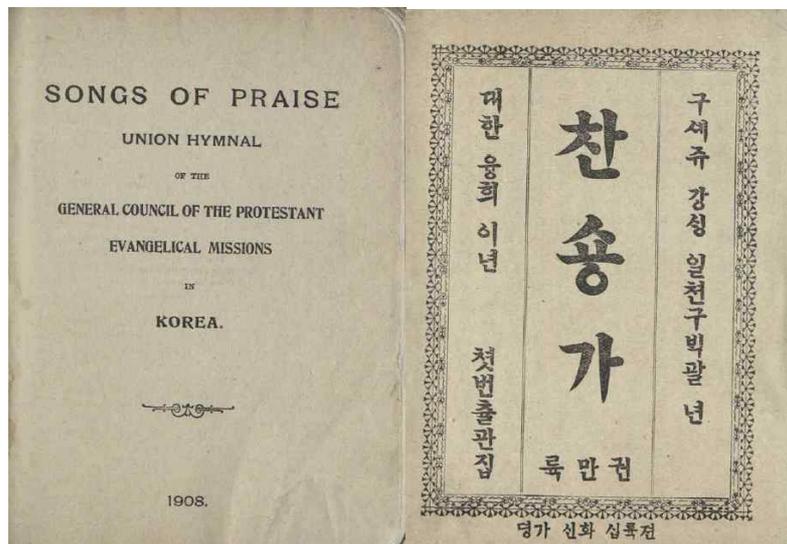
<○○○○ 위원>

1) 현상

- 대체로 온전함.

2) 내용 및 특징

- 『찬송가』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합동찬송가로서 장로교의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인 안애리(Mrs. 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와 민로아(閔老雅, F. S. Miller, 1866~1952)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의 방거(房巨, D. A. Bunker, 1853~1932) 선교사 등이 편집위원이 되어 만든 262편의 무곡조 찬송가이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합동찬송가인 이 『찬송가』는 1908년에 요코하마(橫濱)의 후쿠인(福音) 인쇄소에서 발행된 소형본(小形本)이다.
-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찬송가는 감리교 선교사인 존스(G. H. Jones)와 로드와 일러(L. C. Rothweiler)가 편찬하여 이보다 16년 전인 1892년에 감리교 선교부에서 발행한 『찬미가』(무곡조)이다. 이어 1894년에는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곡조가 있는 찬송가인 『찬양가』를 편찬 발행하였으나 장로교와 감리교의 공동 찬송가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 이듬해에는 감리교는 『찬미가』, 장로교는 『찬성시』를 따로 발행함으로써 이후 세 종류의 찬송가는 합동찬송가인 『찬송가』가 나오기 전까지 교파와 지역에 따라 각기 사용되었다. 이들 초기의 찬송가들은 모두 19세기 미국의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장로교회에서 널리 사용하던 찬송가 『The New Laudes Domini』를 원전으로 사용하였다.



<사진 1> 『찬송가』의 한글과 영문 표제지(Title page)

- 이후 합동찬송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책의 서문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의 빛이 한국에 임한 후에 감리회에서는 『찬미가』를 노래하고, 장로회에서는 『찬성시』와 『찬양가』를 불렀다. 양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볼 기회를 만나면, 찬송하는 노래를 피차에 같이 부르지 못하여 주를 찬송하는데 서로 즐거움이 온전치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어 두 회의 노래를 합하여 한 책을 만들어 이름을 『찬송가』라 하였다. 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 아름다운 찬송이로다.”

- 드디어 1902년에 한국장로교공의회(韓國長老教公議會)가 “장로교에서는 『찬성시』를 공식 찬송가로 채택하고, 다른 교파의 찬송가 합동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한 뒤에 합동찬송가를 편성하기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양 교단이 선임한 편집 책임자는 한국어를 잘 하고 음악과 시문에도 조예가 깊은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인 안애리와 민로아 선교사 그리고 방거 선교사였다.
- 안애리(베어드 여사)와 민노아는 가사의 번역과 수정작업을 하였으며, 방거는 가사와 곡조의 악센트가 맞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큰 틀에서의 업무방침은 1931년에 발행된 『신당 찬송가』의 서문의 “1905년에 장로파와 감리파의 합동 운동이 시작되어…개정할 것은 개정하고…말은 존경어로 구조가 명확하며, 의사가 정당하고, 교리에 적절한 것만 쓰기로 한다.”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안애리(베어드 여사)는 우리나라 개신교 찬송가의 형성과 초기 교회의 신앙형성에 가장 공헌이 많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이 『찬송가』는 이전에 발행된 장로교의 『찬성시』와 감리교의 『찬미가』 그리고 언더우드의 『찬양가』를 통합하여 만든 것이나 대부분 『찬성시』에서 채택되었다. 이렇게 “한국교회 대세의 찬송가는 언더우드의 『찬양가』나 감리교의 『찬미가』가 대개는 그 난해성 때문에 제외되었고, 베어드부인의 흔적이야로 새겨진 『찬성시』에서 즐거움을 찾아, 그것이 『찬송가』로 이어지게”(이양호)된 것이다.
- 송실대 소장의 『찬송가』는 붉은 색의 천 표지에 『찬송가』라는 표제가 세로로 찍혀있다. 표지를 넘기면 이전 소장자인 「弑笑」, 「吳漢根印」 등 두 개의 인장이 오른 쪽 아래 부분에 찍혀 있다. 표제지의 가운데에는 세로로 『찬송가』라는 서명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구세주 강심 일천구백팔 년”, 왼쪽에는 “대한 율희 이년 첫번 출판집”과 같이 이 책이 1908년에 발행된 초판본임을 알려주고 있다. 가운데 아래로는 이 책의 발행부수와 가격에 대해 “륙만원”, “당가 신화 십륙전”이라는 가로표기가 있다.
- 다음으로는 서문에 이어 「문데 목록」과 「찬송가 목록」이 있는데, 그 배열순서는 “아하가카”순 배열이다. 이 배열은 1925년에 발행된 제 4판부터 “가나다”순으로 바뀌게 된다. 이어 본문인 찬송가와 십계명 그리고 영문서명(『SONGS OF PRAISE』)과 발행주체(Union Hymnal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포함된 영문 표제지(Title page)가 있다. 영문 표제지 뒷면에는 역시 영문으로 “일본 요코하마의 후쿠인 출판사에서 인쇄되었다.”는 영문이 있다. 다음에는 영문색인인 「TOPICAL INDEX」와 「INDEX」가 있는데 영문페이지는 모두 12페이지이다.

- 이 『찬송가』는 서문과 목차가 1-22페이지, 찬송가는 1-268페이지, 십계명은 271-274페이지, 영문색인 등은 모두 xii(12)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실대 소장본은 269-270페이지에 해당되는 1장이 결락되어 있다. 이 『찬송가』는 곡조는 없으나 영문가사 첫줄과 곡조이름(Tune name) 그리고 그 곡조가 수록된 미국 찬송가명과 해당 장수를 표기해놓아 선교사들이 원래의 곡조를 찾아서 신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선교사의 한글 창작찬송은 32편인데, 이는 모두 장로교 찬송가인 『찬성시』에서 옮겨 놓은 것이다.

3) 문헌자료

- 문옥배, 『한국교회음악사:한국찬송가 100년사』, 예술, 2011.
- 오선영, “찬송가의 번역과 근대 초기 시가의 변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42집, 2009.
- 오소운, “한국 최초의 개신교 통일 찬송가 『찬송가』(1908년)연구”, 『한국 개신교 찬송가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이양호, “한국교회 찬송가의 역사”, 『기독교사상』 41(8), 1997.
- 조숙자, “한국 최초의 감리교 찬송가 찬미가 연구”, 『장신논단』 17집, 2001.
- 홍정수, “찬송가의 초기 정착과정”, 『장신논단』 11집, 1995.
- 정경자, “한국교회 찬송가 변천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08년에 발행된 합동찬송가인 『찬송가』는 먼저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차원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개신교 찬송가의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 『찬송가』는 이후 감리교의 『신명찬송가』(1931)와 장로교의 『신편찬송가』(1935)로 분리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의 합동찬송가였다. 또 1983년에 발행된 『통일찬송가(unity Hymnal)』의 내용도 ⅓이상이 이 『찬송가』에서 가져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하나의 찬미를 부를 수 있게 된 현행 찬송가의 모태가 되는 셈이다.
- 아울러 서양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합동찬송가인 1908년 발행의 초판본 『찬송가』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종합의견

-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합동찬송가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위원>

1) 현상

- 붉은 색 포의 양장한 것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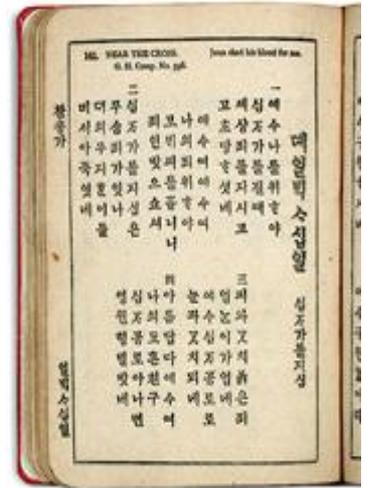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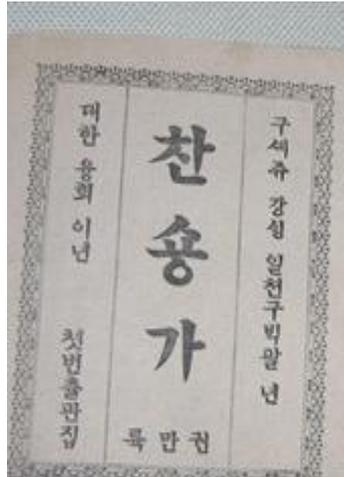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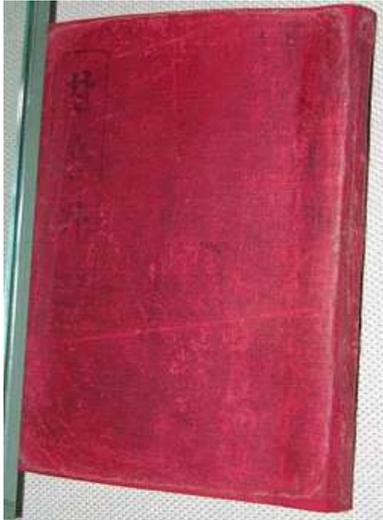
- 『찬송가』, 15.1×11.5(cm), 274면(262편 가사 수록)
- 발행 : 조선예수교서회
- 인쇄 : 요코하마(横浜) : The Fukuin Printing Co. Ltd
- 발행년도 : 1908년
- [출판 경위] 이 찬송가는 내한하여 선교하던 개신교 교파들이 교파별로 따로 따로 사용하던 찬송가를 하나로 합동 편집하여 1908년에 출판한 최초의 교파연합 찬송가이다.

- 한국에 선교하던 미북장로회 선교부, 미남장로회 선교부, 호주장로회 선교부, 캐나다장로회 선교부, 미북감리회 선교부, 미남감리회 선교부는 1905년 9월 재한 개신교선교부연합공의회를 조직하고, 협동사업의 하나로 연합 찬송가집 편찬을 결의하였다. 그 후 공의회 산하에 찬송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로교의 베어드 부인(安愛理, Mrs. 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과 밀러(閔老雅, F. S. Miller, 1866-1952), 감리교의 벙커(D. A. Bunker, 1853~1932)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출판을 준비했다. 인쇄비는 장로교 감리교 양 교파에서 분담하고, 1908년 5월 이전에 편집이 끝나 일본에 요코하마에 있던 복음인쇄소(The Fukuin Printing Co. Ltd)에 원고를 넘겼으나 인쇄소 건물의 화재로 출력이 약간 지연되었지만, 그해 여름에 초판 6만권을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 [내용 및 특징]
 - 악보 없이 262곡의 가사만 수록했고, 가사 본문의 윗면에 알파벳으로 찬송가 번호를 기록하고 영문 제목을 병기했다. 수록된 곡들은 장로교의 『찬성시』(1905)에서 142곡, 감리교의 『찬미가』(1905)에서 『찬성시』(1905)에 수록되지 않은 87곡의 가사를 수정하여 실었고, 미국 부흥회 노래집인 Gospel Hymns Complete(I. D. Sankey, J. McGranahan & G. C. Stebbins ed., 1894)에서 새롭게 번역하여 실은 것도 있다.
 - 본문 뒤에 십계명을 수록했고 그 뒤에 영문 속표지와 영문 목차를 수록했다. 표지는 천으로 되었다. 현대 찬송의 원본적 형태로, 오늘날 익숙한 곡조나 가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 우리 고유의 가락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찬송도 6장이 포함되어 있다.
- 3) 문헌자료
- 한영제, 『한국성서찬송가100년』, 기독교문사, 1987.
 - 조숙자, 『「찬송가」(1908년)연구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음악연구원, 1995.
 - 민경배, 『한국교회 찬송가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예술출판사, 2002.
- 4) 기타
- 김양선(金良善) 목사가 해방 전 북한 지역에서 수집하여 해방 직후 아내 한필려 여사가 월남할 때 옮겨와 한국전쟁 때 일시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에 옮겨져 보관되다가 1960년에 되찾아 1967년 숭실대학교 사학과의 교수 있을 때 기증함.
-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찬송가』(1908년)는 한국 최초의 교파연합 찬송가일뿐만 아니라 숭실대 박물관 소장본은 6만권을 출판한 초판본 중 한 권으로,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6)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 가치 있음.

<○○○ 교수>

1) 현상

- 송실본의 표지(하단 좌측)는 붉은 색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제목은 글씨가 희미해졌으나 알아볼 수 있다. 속표지(하단 중앙) 역시 온전하며, 내부(하단 우측)도 양호한 편이다.



2) 내용 및 특징

- 『찬송가』의 원 제목은 『찬송가』 (Songs of Praise Union Hymnal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of Korea)로,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출간한 찬송가이다.
- 1902년 이후 장로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찬성시』를 사용하면서, 『찬미가』를 사용하는 감리교 등, 교파간의 분과성을 띄고 있는 찬송가를 통일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통합공의회찬송가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장로교의 베어드 부인(安愛理, Mrs. Annie Laurie Adams Baird)과 밀러(閔老雅, F. S. Miller) 그리고 감리교의 벙커(D. A Bunker)가 위원으로 활동하여 총 262장의 『찬송가』로 결실을 보게 되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교사업에서 교파연합활동의 가능성이 열렸다.
- 이 찬송가는 처음 출판하던 해에만 6만부를 발행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전의 성서 표지들과 달리 중앙부 제목 밑에 가로쓰기로 “륙만권”이라 표기되고 좌측 하단에 세로쓰기로 “첫번출판집”이라 기재되어 있다. 악보 없이 가사만 수록하고 가사 본문의 윗면에 알파벳으로 찬송가의 번호를 기록하며 영문 제목을 함께 기록하였다. 찬송가집의 본문 뒤에는 ‘십계명’을 수록하고 그 뒤에는 영문 속표지와 영문 목차를 수록하였다. 262곡의 찬송은 ‘찬송합과 예배함’, ‘예수그리스도’, ‘예수의 탄생하심’ 등 그 내용을 20부분의 주제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는데,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곡조나 가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가사가 세련되어 오늘날 찬송의 원본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부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단 찬송도 여섯 장이 있다. 이들 찬송은 인도자가 먼저 한 줄을 노래하면 회중이 그 말과 곡을 반복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가창 방식도 활용하여 친근감을 더 하였다.

3) 문헌자료

- 한영제 편, 『한국성서 찬송가 100년』 기독교문사 1992.
- 김성대, “한국개신교회 공인찬송가의 토착화” 『부산장신논총』 제1호(2001.12)
- 문옥배, 『한국찬송가 100년사』 예술, 2002.
- 문성모, “초기 찬송가에 관한 연구,” 『신학과 문화』 제 14집, 2005. 5.

4) 기타

- 개신교에서는 ‘찬송가’도 성경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 책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찬송가로는 처음으로 교과연합으로 발간된 것이다. 그간 여러 교과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던 여러 찬송가들을 집대성하여 주제에 따라 구분 정리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나마 찬송의 토착화를 위한 과감한 시도 역시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 또한 이 책의 가사가 문학적으로도 인정받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와 깊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교수>

1) 현상

- 표지, 내지, 속표지, 서문, 문제목록, 찬송가목록
- 노래 가사 (이상 서문(1쪽)부터 267쪽까지 총 262곡, 278쪽 공란, 279-80쪽 낙장)
- 십계명 (이상 한글 세로쓰기, 271쪽-274쪽)
- Index(영문)
- Topical Index
- 출판서지
- 영어표지 (이상 영문 가로쓰기, 로마자 페이지 표지부터 Index까지 총 12쪽)
- 보존 상태 좋지만 1장(2쪽)이 제거되어 있음 - 수록 내용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 즉 악곡과 십계명의 경계에 있는 279쪽과 280쪽. 이후로 페이지는 이어지는데 해당 쪽은 낙장임. 이 두 페이지에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었거나 공란으로서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제본될 때 제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이 책은 가사본 초판으로 모두 262곡이 실려 있고 십계명도 첨부되어 있다. 일본 후쿠인 출판사에서 인쇄되었고, 찬송가위원회에 의해 편찬되었고 경성의 대한예수교서회에서 발행되었다. 이 책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간행물들 즉, 『찬미가』, 『찬양가』, 『찬성시』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초기 한국 개신교 예배곡집은 교과 간 차이뿐만 아니라 교과 내의 계과 간의 차이를 반영했다. 1892년 감리교에서 한국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예배곡집으로 사용할 소재자를 간행한 이후 각 교과와 계과를 막론하고 다양한 예배곡집을 출판했다. 한국어 예배곡집은 예배에 필요한 노래는 물론이고 한글교육, 서양음악에 대한 교육에 기여했다.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감리교를 비롯하여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성결교 등이 앞다투어 예배곡집 간행했다.
- 여러 교과 가운데 감리교와 장로교는 일찍부터 예배곡집을 간행했지만, 각 교과 내의 계과 별로 서로 다른 예배곡집을 사용했다. 예를들면 대한제국시절까지 북감리교(혹은 美以美教會)와 남감리교는 각각 다른 예배곡집을 사용하다가 『찬

미가』 7판(1904)이 간행될때에 비로소 같은 책을 사용했다. 그러나 1905년에는 남감리교에 속했던 윤치호의 『찬미가』를 간행했고 이 책이 재판되기도 했다. 한편, 장로교에서도 남장로교 이하지역에서는 『찬양가』(1895)를, 평양을 위시
로 한 북장로교회에서는 『찬성시』(가사관, 1895)를 사용했는데 『찬성시』의 제9판은 악보집(1905)으로 간행될 만큼 확산되어 있었다.

3) 문헌자료

-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와 한국 찬송가 100년사』 서울: 예술, 2001.
- 문옥배, 『한국교회음악수용사』 서울: 예술, 2004(2판).
- 문옥배, 『한국근대 교회음악 사료연구』 서울: 예술, 2005.
- 조숙자 외, 『찬송가학』 서울: 장로교신학대학출판부, 1988.
- 조숙자, 『한국개신교찬송가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3.
- 홍정수, 『한국 교회음악 사료집』 제1권,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교회음악연구원, 1992.
- 홍정수, 『한국 교회음악 사료집』 제2권,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교회음악연구원, 1993.

4) 기타

- 한국근대음악사에서 기독교음악사의 궤적을 따라가면 다양한 계파의 개신교 예배곡집들이 등장한다. 현재 찬송가라는 용어는 개신교 예배곡집의 범칭으로 사용되지만 이 용어가 사용되던 초기에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특정 시기에 함께 사용했던 특정 예배곡집을 한정하는 이름이었다. 실제로 초기 예배곡집의 서명(書名)은 그 자체로 특정 교파나 교파 내 계파를 상징했다. 따라서 본 유물 외에도 한국개신교사의 전개에 등장하는 주요 예배곡집이 더 있으므로 그것들을 특정 시기와 계파에 한정된 용어였던 “찬송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개신교 노래책을 유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 주체와 간행시기, 용도와 형식 등을 일관성 있게 명명해야 한다. 이에 본 사료의 명칭은 “대한제국기 연합(감리교·장로교) 예배곡집 가사판(초판)”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해방 전까지 개별 교파와 교파 내 계파 별로 예배곡집의 활용양상이 모두 달랐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일찍부터 예배곡집을 공동으로 제작하자는데 동의했다. 두 교파는 조선말기와 대한제국기,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합의한 바 있었다. 첫 번째는 두 교파가 1892년과 1894년 이전의 합의였고, 두 번째는 1905년에 대한복음주의 선교부 연합공의회에서 공용 노래책의 편찬을 결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본 합의는 결과물을 내는데까지 진행되지 못했고, 대한제국기에 이룬 합의는 간행물로 완결되었다. 후자가 본 유물(1908년 간행)이다. 이 책은 장로교에 속했던 베어드 여사(Mrs. Baird)와 밀러(F. S. Miller), 북감리교회에 속했던 벙커(D. A. Bunker) 등이 참여하여 만든 연합본 예배곡집이기 때문에 기존에 감리교가 사용했던 예배곡집, 『찬미가』와 장로교의 『찬성시』의 표제곡들이 대량으로 수용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그대로 편집되었다.(문옥배 2004: 262-6) 따라서 한국 개신교 전파사에서 계파 간 통합이라는 문제가 노래책에 관철된 사례로 이 책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이 책은 1930년대 초부터 연합 예배곡집으로서 권위는 잃게 되었지만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했다. 1931년에 감리교에서 간행한 『신정찬“송”

가』(“ ” 필자, 이하 같음)와 장로교에서 출판한 『신편찬“송”가』는 『찬송가』에 수록된 노래들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서명(書名)에서도 찬“송”가라는 이름을 공유했다. 이는 곧 1908년 간행된 예배곡집이 중판을 거듭하면서 “찬송가”를 개신교 예배악곡들의 범칭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찬송가』의 초판은 한국개신교 한국가창사에서 예배곡집의 확장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 할 것이다.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에서 1999년 소독 및 클리닉, 산성화 처리했음.

7) 종합의견

- 본 사료를 한국근대음악사의 문화재로 등록함이 가함.

3.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12.1.)를 거쳐 등록예고('16.12.15.~'17.1.13.)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성공회유지재단(서울주교좌성당)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1점	전체 높이 : 8.6m (제단화 높이: 5.4m, 기단부분 높이 : 3.2m), 곡면 길이 : 약 8m	상단, 기단부분: 1927~1928년, 하단: 1938년	색대리석, 각석	대한성 공회 유 지 재 단 (서울주 교 좌 성 당)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15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78건 목록화,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 2. 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4.27.)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검토의견 : 완성도 높은 현재까지 사용되는 모자이크 제단화임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12.1.) / 원안가결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를 등록검토 대상으로 결정

(4)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 12. 15. ~ '17. 1. 13.(30일간)
-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5)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7.)>

○ ○ ○ ○ 위원

- 모자이크는 조지 재크의 디자인에 따라 1927년에서 1938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예수가 들고 있는 책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Ego Sum Lux Mund)'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중앙의 예수 아래에는 성모마리아를 중심으로 왼편으로 성사도요한과 성스테파노, 오른편으로 성 이사야 선지자와 성니콜라스가 묘사되어 있다. 조명에 의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자이크벽화는 소박한 로마네스크성당에서 화려하고 아우라가 가득찬 성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서울 성공회 대성당의 모자이크 벽화는 우리나라에 성공회성당은 물론 교회건축에서 가장 완성도 높고 오래된 모자이크 벽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
- 특히 재료는 물론 유지관리도 매우 잘되어 원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 ○ ○ 전문위원

-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아름답고 작품성이 높으며, 현재에도 이 성당의 제단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 ○ ○ ○ 교수

-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자이크 제단화라는 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조지 재크의 작품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조사보고서 1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15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3. 소유자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4. 조사자 의견

<○○○ 위원>

1) 현상

- 성공회 성당은 후진(애플)의 만곡된 벽면에 조성된 벽화다. 성당의 모자이크벽화는 로마건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로마네스크건축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미술 장르라고 할 수 있다.
- 성공회성당은 1922년 조마가(마크 트롤로프)주교의 의뢰로 건축가 아서딕슨이 설계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1926년에 회중성의 일부와 트란셉이 지어지지 않은채 부분 준공되었다. 1926년 부분 준공 당시에는 애플에 모자이크 벽화가만 들어지지 않았다. 모자이크벽화가 완성된 것은 1936년이였다.
- 1994년 성당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미완의 성당 복원을 추진하던 중 런던 교외의 Lexington도서관에서 보관되어 있던 원 도면이 발견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1996)

2) 내용 및 특징

- 모자이크는 조지 재크의 디자인에 따라 1927년에서 1938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예수가 들고 있는 책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Ego Sum Lux Mund)’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중앙의 예수 아래에는 성모마리아를 중심으로 왼편으로 성사도요한과 성스테파노, 오른편으로 성 이사야 선지자와 성니콜라스가 묘사되어 있다. 조명에 의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자이크벽화는 소박한 로마네스크성당에서 화려하고 아우라가 가득찬 성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서울 성공회 대성당의 모자이크 벽화는 우리나라에 성공회성당은 물론 교회건축에서 가장 완성도 높고 오래된 모자이크 벽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
- 특히 재료는 물론 유지관리도 매우 잘 되어 원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도 성공회성당에 의해 매우 잘 유지·관리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모자이크벽화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인 성공회성당의 가치와 함께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공회성당은 낮시간에 주변의 직장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어, 성공회서울대성당은 건축과 음악 그리고 성미술이 앙상블을 이루며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전문위원>

1) 현상

- 본 모자이크는 본당의 정면 제단화로 구성되어 있다. 2단과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왼손에 성서를 들고서 오른손으로 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이 들고 있는 성서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EGO SUM LUX MUNDI”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수님 머리에는 둥근 후광이 있으며 좌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JC” 와 “XC”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 하단에는 가운데에 푸른 망토를 걸친 성모가 아기예수를 안고 앉아 있으며, 그 좌우에 4명의 성인이 표현되어 있는데, 각각의 인물에 이름과 함께 각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물들이 표현되어 있어, 각 성인들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관람자가 모자이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맨 왼쪽에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SCS STEPHANUS MAR), 이어서 복음서 저자 성 요한(SCS JOHANNES EVAN), 그리고 예언자 성 이사야(EXAIAS PROPHETA), 서울주교좌 성당의 수호성인 성 니콜라(SCS NICOLAS EPS)가 표현되어 있다.
- 하단 아랫부분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모자이크화와 대리석 사이에 수평 띠를 두르고 고전적 라틴어 찬송인 찬양 천주송가(Te Deum)의 첫 구절이 새겨 넣었다.

2) 내용 및 특징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의 모자이크는 서양의 비잔틴 모자이크 형식으로 조성된 제단화이다. 반원형 안에 축복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그리스도 이미지는 ‘판토크라토르’라는 도상으로, 비잔틴 성당의 모자이크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 모자이크화의 설계를 맡은 조지 잭(George Jack, 1855-1932)은 미국인이었는데, 영국으로 이주하여 필립 웹(Philip Web, 1831-1915)의 런던공방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윌리엄 모리스 공방에서 가구 디자인을 하였으며 런던예술공예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영국 가톨릭 웨스트민스트 성당의 성 앤드류 채플 모자이크가 있다.
-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작을 직접 맡았던 인물은 영국인 조시(Jorsy)로 알려져 있다. 매우 공을 들여 제작했으며 현재까지 원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이 잘되어 있다.

3) 문헌자료

-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백년』(상권: 1890-1964), 대한성공회출판부, 1991.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서울주교좌성당 제단화 모자이크화는 성당 건축 당시에 성당의 주문으로 제작되었는데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아름답고 작품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혀 훼손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이 성당의 제단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 모자이크화가 제작된 지 9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공인된 모자이크 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현재 서울주교좌대성당과 양이재(養怡齋) 건축물들과 함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로 소개 할만하다.

6) 종합의견

-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아름답고 작품성이 높으며, 현재에도 이 성당의 제단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 교수>

1) 현상

- 이 작품의 설계자 조지 잭(George Jack, 1855~1932)은 영국으로 이주하여 런던 공방에서 건축을 공부한 다음 윌리엄 모리스 공방에서 가구 디자인을 한 후 런던예술공예학교(L.C.C. Central School of Arts and Crafts)에서 교수로 재직했음. 대표 작품으로는 영국 가톨릭 웨스트민스 트 성당의 성 앤드류 채플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의 작품이 국내에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
- 현장에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 작품은 각석, 대리석/모자이크로 제작되었는데 작품상태가 양호하였음

2) 내용 및 특징

- 본 모자이크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 첫째 층에는 한 손에 성서를 들고 축복을 내리고 있는 푸른 옷의 예수상이 있음. 예수가 들고 있는 성서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EGO SUM LUX MUNDI’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며, 예수상 좌우에 ‘JC’와 ‘XC’가 적혀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 중간층에는 다섯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부터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SCS STEPHANUS MAR), 복음저자 성 요한(SCS JOHAN-NES EVAN),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예수의 탄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미리 내다 본 예언자 성 이사야(EXAIAS PROPHETA), 서울주교좌 성당의 수호자인 성 니콜라(SCS NICOLAS EPS)이다. 각 인물의 표정과 손짓, 그리고 함께 그려진 물건과 동물들은 성서에서 유래함.
- 이 제단화는 성당 건축시에 제작된 것으로, 제작시기와 작가가 알려진 작품.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작품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도 매우 좋음. 현재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적으로 이에 비견되는 모자이크 작품이 없는 만큼 문화재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윌리엄 모리스 공방에서 수학한 조지 잭(George Jack, 1855~1932)의 작품으로 이 작품은 영국 가톨릭 웨스트민스 트 성당의 성 앤드류 채플 모자이크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됨, 그는 두 번씩이나 내한해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이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작품이후 모자이크화가 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한국 유일의 본격적인 모자이크 작품”(이연호)로 평가된다. 그리스도를 시리아형의 검고 깊은 모발로 그린 것이나 오른손 두 손가락을 모은 ‘판토 그라토’형의 포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이런 도상은 로마시대의 어린 양을 어깨에 맨 목동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미지와 비교하면 대조를 이룬다.

- 국내에서 보기 드문 ‘판토 그라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점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자이크 제단화라는 점,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조지 잭의 작품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사료됨,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대는 상태가 괜찮으나 모자이크 제단화가 제작 된지 1백여년이 흐른 것이므로 향후 보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각석이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경우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품관리에 보존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
- 교회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작품컨디션 리포트를 받아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지원이 되어야할지 정보교환이 요망됨

5) 종합의견

- 국내에서는 희귀한 모자이크 제단화로 작품상태가 양호하고 작품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평가됨,

4.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의 문화재 등록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검토('16.12.1.)를 거쳐 등록예고('16.12.15.~'17.1.13.)한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해병대사령부
- (2) 대상문화재명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 2-18번지
 - 소유자 : 국방부
 - 수량 및 면적 : 1동 / 250.80m²
 - 건립시기 : 1959년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12.15.~'17.1.13. (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심의내용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등록문화재 등록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9. 6.)>

- 문화재위원 ○○○
 - 한국전쟁기에 발족한 군대 내의 교회 조직에 필요한 건축물을 세웠던 상징성과 강군건설의 원동력이었던 신앙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1959년 건축된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소규모 교회로 해병대의 군종사적 발원지라는 의미와 해병대의 역사, 흔적이 배어있는 장소적, 공간적 가치를 지닌 건물임
 - 현재 일부 내·외부 마감 재료가 변경되었지만 신축 당시의 구조, 규모, 형

태 등을 유지하며 건축 원형의 보존 및 활용여건도 양호하므로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한국전쟁 중에 창립된 해병대사령부 최초 교회로서의 상징성과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군인교회로서 군중사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등록 문화재로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마. 문화재 등록 명칭 검토

- 문화재위원 ○○○ : 구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
- 문화재전문위원 ○○○ : 서울 해병대 초대교회
- 근대문화재과 : 서울 구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문화재 명칭은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로 함)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구)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2. 용 도 : (현) 교회 (원) 교회

3.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용산대로 2가 2-18 일대

4. 소유자 : 국방부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 준공일 : 1959년 12월 31일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250.8㎡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09.06.)

<문화재위원 ○○○>

1) 개요

한국전쟁 중에 진해에서 창설된 해병대 사령부 교회가 부산에서 임시로 지어 사용하던 장막교회, 킨셋교회를 거쳐, 사령부가 서울로 옮겨 오게 됨에 따라 현재의 건물을 건설하여 오늘에 이른다. 다만 1973년 10월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교회의 기능마저 끊겨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2001년 4월에 교회역사를 조사하던 한국기독교해병 선교회에서 원위치에 옛 모습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철차를 밟아 2003년 중수공사 후 교회로서 기능을 회복하였다. 2010년에는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를 통하여 원형을 보존한 채 중수 보강하여 그해 11월 9일에 중수현당예배를 올렸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해병대 공병감실에서 설계하여 당시의 군부대 내의 시설물로 간단히 건축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주요 구조는 시멘트 블록으로 벽체를 축조하고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구조보강을 하였다. 목조트러스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고 창은 뽕쪽 아치로 설치하여 군부대 내에서 기독교 건축임을 외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중수공사에서 내부 마감재료를 바꾸었고 구조보강을 위하여 외관의 일부(부축벽, 처마의 테두리 등)에 마감이 덧붙여져 있으나 신축준공 당시의 구조와 규모,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한국 해병선교회에서 교회관리와 종교행위를 전담하고 있고 교회역사 자료수집, 정리, 전시하고 있어 보존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인접대지에 위치한 두 채의 건물인 “해병대 구 본청사”(1956년 건축, 현 방위사업청), “해병대 기념관”(1975년 4월 15일 준공)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해병대 초대교회와 함께 세 건물을 일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병대 구 본청사는 1955년 부산에서 서울 남산으로 이동한 해병대 사령부가 1956년에 용산으로 다시 이동하여 갖게 된 청사로서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 한국 해병대의 얼이 깃든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병대 기념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와 해병대의 모금으로 건립된 것으로 1970년대 초반의 모더니즘 계열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건물 주변의 조경 또한 함께 등록하여 구 본청사 전면의 국기게양대, 기념관 주변의 전적비, 장갑차 등을 함께 등록보존 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보존관리 계획이 본 유구와 부합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항구적인 종교행위와 그에 관련 있는 인사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같은 경내 인근건물에 해병대 역사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관람동선 유치와 관리로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한국 전쟁 복구기에 민간에서 군대의 도움을 받아 축조된 교회, 성당 등은 쉽게 볼 수 있으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교회건축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사례가 드문데, 해병대 공병감실의 설계로 상전기업 주식회사라는 건축관련자들이 밝혀져 있고 보존 상태가 좋은 상태로 현조하고 있는 근대기 자료이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한국전쟁기에 발족한 군대 내의 교회조직에 필요한 건축물을 세웠던 상징성과 강군 건설의 원동력이었던 신앙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1안)구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

2안)구 해병대 사령부 구 청사 및 부속건물군(구 청사, 기념관, 초대교회)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해병대사령부 교회는 1949년 4월 진해에서 해병대가 창설된 후 한국전쟁 중 1951년 3월 12일 창립되었으며, 이후 해병대사령부와 함께 1951년 5월 부산으로 이전.
- 해병대사령부가 1955년 3월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서 1956년 6월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현 위치에 쉼셋 건물로 건축.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임시용 쉼셋 건물을 헐고 영구적 건물을 신축하여 1956년 12월 31일 헌당하였으며, 이 건물이 현존.
-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다 2001년 한국기독해병선교회에서 건물 존재를 발견하고 기념비를 건립.
- 2003년 내외부 복원, 중수공사를 거쳐 교회 용도로 복원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용 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1949년 해병대 창설 직후 한국전쟁 당시 1951년 종교를 통한 정신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창립된 교회로, 이후 신앙전력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였다는 군중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

- 해병대 공병감실이 설계하고 공사비 14,098,353환(換) 규모로 상전기업주식회사(대표 김덕준)이 시공하였으며 1959년 11월 14일 착공하여 1959년 12월 31일 준공. (해군 군중사 제1집 44쪽 기록 참조)
- 장축 19m, 단축 17.4m의 소규모 교회로 바실리카(basilica)식 장축형 십(十)자형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내부는 예배실을 중심으로 양측에 목사실과 준비실을 각각 돌출시켜 형성하고 예배실은 신랑과 측랑의 구분이 없는 통칸(通間)형 공간을 형성.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식 구조로 기둥과 보를 철근콘크리트로 구성하고 외벽은 시멘트 블록으로 채웠으며 지붕은 목조트러스로 가설.
- 기본적으로 고딕양식을 추구한 교회이지만 당시 일반적인 적벽돌 조적조가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라멘식 구조체와 시멘트 블록조 외벽에 의해 고딕양식을 구현.
- 시멘트 블록조 외벽체는 출입구 및 창문을 일반적인 상인방(上引枋) 기법에 의해 형성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첨두형 아치 형태로 형성함으로써 고딕적 분위기와 종교적 상징성을 강조.
- 특히 정면 주출입구는 대형 첨두형 아치 구조체를 여러 겹 중첩시킨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진입성과 상징성을 더욱 강조.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방치, 훼손되었던 건물을 2003년 내외부 복원공사를 통해 원형을 회복하고 활용하였으며, 2010년 기둥 구조보강, 지붕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
- 외관은 지붕, 기둥 등에서 일부 마감재료가 변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는 전체적으로 마감재가 변경되었지만 교회의 공간적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
- 2003년 이후 교회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유지, 관리되고 있으므로 일부 재료가 변경된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 훼손된 부분이 없이 원형 유지 및 보존상태가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해병대 측에서 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등록시 문화재로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 입지는 현 방위사업청 부지내에서 주변 건물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등록시 문화재 보존관리를 저해할만한 주변환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해병대측에서는 교회로서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로 보존하며 본래 용도 그대로 활용하는 매우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해병대측에서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 보존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장래 문화재로서 활용계획은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해병대 관련 등록문화재로는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등록문화재 제410호, 한국전쟁 당시 건축)의 사례가 있고 군 종교 관련 등록문화재로는 남제주 강병대교회(등록문화재 제38호, 1952년 건축)의 사례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식 구조체와 시멘트 블럭조 외벽에 의해 고딕양식을 구현하며 1959년 건축된 소규모 교회로 현재 일부 내외부 마감재료가 변경되었지만 신축 당시의 구조, 규모, 형태 등을 유지하며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해병대 창설 직후 한국전쟁 중 창립된 교회로 신앙전력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였다는 군중사적 가치와 해병대 사령부의 역사와 흔적이 배어있는 장소적, 공간적 가치를 지닌 건물.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해병대의 역사, 흔적을 보여주는 장소 및 공간이자 군중사적 발원지라는 의미를 지닌 건물이고 또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장래 문화재로서 지속적 보존 및 활용여건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한 장소는 과거 해병대사령부였지만 현재 방위사업청으로 활용중이며, 과거 해병대사령부 유적으로는 초대교회 이외에도 당시 본관(현재 방위사업청 본관, 1956년 건축), 해병대박물관(1975년 건축) 등이 남아 있음.
- 현 방위사업청 본관은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해병대박물관은 내부에 다수의 군사유물과 주변에 장갑차, 전투기념비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등록문화재로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등록신청 관련서류에는 명칭이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와 해병대 초대교회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데, 등록시에는 공식적 명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해군 군중사 44쪽 내용에 보면 건평 60여평 규모로 최초 건축된 것으로 기록된 반면에 첨부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250.8㎡ (76평) 규모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동 교회건물은 1959년 현재의 위치에 건립된 해병대 교회로서 해병대사령부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49년 4월 15일 해병대가 진해 덕산 비행장에 창설됨에 따라 1951년 3월 12일 ‘해병대 초대교회’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전쟁 직후 해병대사령부가 현재 방위사업청 부지로의 이전에 맞춰 ‘장막교회’와 ‘퀵셋교회’ 등을 거쳐 1959년 12월 31일 영구적인 건물로 오늘날의 모습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교회건물의 설계는 해병대 공병감실, 시공은 상진기업주식회사 맡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으나, 오늘날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 후,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됨과 동시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랜 세월 동안 기무사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 2003년 4월 7일 해병대 창설 제54주년을 기념하여 훼손, 변형된 교회건물을 중수하여 예배당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시기 교회 명칭은 ‘방패교회’로 불렸으나 2005년에 이르러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의 명칭을 회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전언(傳言)에 의하면, 해병대사령부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할 당시 부지 내 제일 높은 곳에 교회 터를 마련하고 그 주변으로 다수의 시설물을 배치하였다고 하는데 오늘날

에도 시계(視界)가 양호한 경우에는 멀리 인천 앞 바다도 조망할 수 있다고 한다. 교회건물은 일반적인 장방형의 평면에 내부는 통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의 강론대를 중심으로 좌·우측면에 별도의 공간인 목양실이 덧붙여져 있어 소위, 바실리카식의 십자형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다. 건물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지붕구조는 목조지붕틀(천정이 설치되어 정확한 형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트러스 구조로 보인다)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개관을 깔고 싱글을 덮었으며 벽체는 시멘트 블록으로 마감 처리하였다. 외벽의 양 측면에는 벽돌로 부축벽을 만들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하고 있는데 건물의 네 모서리 부분에서는 철근콘크리트의 기둥 외부에 벽돌을 쌓아 마감하였다. 또한, 중앙의 출입문과 창문은 첨두아치 형태로 장식하였으며 북쪽 벽면에는 수직창을 내어 실내로의 자연스러운 채광을 유도하였다. 교회 내부에는 700여명의 전·사상자를 낸 도솔산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자란 고로쇠나무로 만든 기념비적인 십자가가 모셔져 있어 군 교회로서의 상징성을 더 해 주고 있으며, 출입문 쪽 외벽 하단부에는 건물 준공일(1959년12월31일)에 맞춰 해병대사령부 제2대 사령관 김석범 중장이 쓴 머리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동 교회 건물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1973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차례(2003년, 2005년, 2010년)의 크고 작은 중수(重修)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마감의 변형(바닥, 벽체, 천정 등)이 있었고 구조보강을 위해 외관 일부(부축벽 및 지붕, 처마 등)에 마감이 첨가되었으며 또한, 출입문 상부에 차양시설인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 교회 입구와 계단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였으나 기본적으로 1959년 신축당시의 구조와 규모,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이후 30여년 시간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일부 변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원형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려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노력들로 보아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오늘날에도 해병을 양성한 신앙전력화의 근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해병대사령부의 초대 교회로서 상징성이 크며 군 기독교 종교유산이라는 측면에서 기타 교회와 비교되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군 기독교 종교유산으로는 등록문화재 제38호로 등록된 ‘남제주 강병대 교회’의 사례가 있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동 교회는 한국전쟁 중에 창립된 해병대사령부 최초 교회로서의 상징성과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군인교회로서 군중사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동 교회와 인접해 있는 ‘구 해병대사령부 본부(1956년 건립)’와 ‘해병대기념관(1975년 건립)’ 역시 해병대 교회와 함께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별도로 등록문화재로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서울 해병대 초대교회’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5.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주변에서 건축물 증축과 개보수 등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정동교회」 주변에서 건축물 증축과 개보수 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정동교회 (사적 제256호, '77.11.22 지정)
 - 소재지 : 서울 중구 정동 32-2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중구 정동 34-3, 34-33 (2·3구역 / 3m이격)
 - ※ 현상변경허용기준 : 2구역(심의구역), 3구역(최고높이 14m 이하)
 - 신청내용 : 건축물 증축, 시설 개보수, 조경 개선 등

<건축물 증축>

가동 (본당 및 정동교회)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건축면적 - 2,044.86㎡→2,098.86㎡
- 연면적 - 3,726.52㎡→3,971.92㎡

나동 (사회교육관)

- 규모 - 지하3층, 지상5층
- 건축면적 - 338.34㎡→408.84㎡
- 연면적 - 3,412.71㎡→3,444.71㎡

<시설물 개보수 >

본당 지붕마감재 교체 : 1,062.48㎡(슬레이트→징크판넬)

회랑 지붕마감재 교체 : 86.07㎡(판넬→각재)

< 조경 개선 >

조경수 식재

- 낙엽교목 : 배롱나무 1주
- 낙엽관목 : 수수꽃다리 16주, 산수국 80주
- 기 타 : 포도나무130주, 맥문동 540본, 호스타류 500본, 수국 40본

바닥포장 교체

- 점토벽돌 : 1,245.45m²
- 인조화강석 블럭 : 239.38m²
- 천연슬레이트 : 114.75m²
- 목재데크 : 24.58m²
- 석재포장 : 14.57m²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의견('17.01.09) / 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 금번 현상변경은 문화재(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건물의 후면과 우측면을 감싸고 있는 본당 건물의 주변을 보수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장 확인 및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문화재 건물과 본당이 지나치게 인접하여 (특히 문화재 후면 외부통로, 본관 주출입구 전면부분) 문화재 보호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금번 현상변경에서 문화재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이격 거리 확보와 완충공간 조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당 경사지붕으로부터 문화재 건물(정동교회) 쪽으로 낙하되는 우수, 낙엽 등이 문화재 건물 외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수처리 및 낙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문화재 건물 주변의 배수로 정비계획 포함)
 - 본당 지붕의 마감교체는 문화재를 비롯한 기존 건물들의 경관 및 분위기와 조화될 수 있는 재료(색상, 질감 등 고려)와 공법(단위재 규격, 잇기법 등 고려)의 선정이 필요함
 - 지하 3층 규모의 썬큰가든 신설을 위한 토목공사 계획은 현재의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법이 선정 적용되어야 함
 - 금번 현상변경에 의한 공사는 2017년 별도로 시행예정인 문화재 건물 보수공사와 연계한 공사일정, 공정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의 지속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문화재 보존방안, 주변환경 개선, 기타 건물 증개축 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동교회 종합정비계획(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근대건축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근대문화재과의 승인 후 공사 단계별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것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6.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내에서 냉난방시스템 개선과 강의실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에서 냉난방시스템 개선과 강의실 인테리어 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총장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사적 제277호, '81.09.25 지정)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냉난방시스템 개선 및 강의실 인테리어
 - < 냉난방시스템 개선 >
 - 당초 : 패키지에어컨 31EA(벽걸이형17, 스탠드형14), 증기식방열기 40EA
 - 변경 : EHP냉난방시스템(천정형) 40EA
 - < 강의실 인테리어 >
 - 인테리어 : 2개실 129.7㎡ (108호-84.8㎡ / 109호-44.9㎡)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의견('17.01.06)/문화재위원 ○○○, ○○○, ○○○, ○○○>
-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강의실은 원구조와 회벽 등의 마감이 남아 있어 원모습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의견('16.11.11)/문화재전문위원 ○○○, ○○○>
- < 냉난방시스템 개선 >
- 실별로 설치되었던 에어컨 31대와 증기방열기 40대를 제거하고 실별로 천정마감면(대부분 암면흡음텍스)과 일체화시켜 천정형 냉난방기 40대 설치하는 공사

- 장점
 - 건물 외부에 노출되어 외관을 해쳤던 에어컨 배관과 실외기 정비로 외관 개선
 - 실 내부에 있던 벽걸이형 또는 스탠드형의 에어컨과 외벽면의 방열기 제거로 실 내부 환경 개선
- 단점
 - 증기방열기로 제거로 난방 설비시스템의 원형과 흔적 상실
- 조사의견
 - 전체적으로 외관보존 및 내부환경의 개선 효과가 있으나 증기방열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 증기방열기 시스템은 일부 실에서만 부분적으로 존치하여 원형과 흔적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강의실 인테리어 >

- 지상1층 계단형 강의실 2개소에서 바닥은 테라조물갈기로 원형 복원하고 벽면과 천정은 기존에 설치된 마감재료를 변경, 시공하는 공사
- 조사의견
 - 금번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바닥은 원형으로 복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벽면은 창문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마감재료로 감싸 원형 기법이 보여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강의실 내부 일부 벽면에서 원형 마감기법을 보여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마. 의결사항

- 보류
 - 원형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출석 7명, 보류 7명

7.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에서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본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심의 검토 이력이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6차 회의('16.12.01) 심의 : 보류
 - * 사유 : 주변 문화재와의 영향성 파악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 서울대학교 본관 (사적 제278호, '81.09.25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87-11 (1구역 / 85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심의구역)
 - 신청내용 : 건축물 신축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16.12.01) 이후 변경 신청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투브
 - 용도 : 근린생활시설(공연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사무실) 및 다가구주택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159.08㎡, 연면적701.00㎡ (최고높이17.7m)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16.12.01) 당시 신청 내역 - 심의결과:보류>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투브
- 용도 : 근린생활시설(공연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사무실) 및 다가구주택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157.25㎡, 연면적707.78㎡ (최고높이19.8m)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의견('17.01.06) / 문화재위원 ○○○, ○○○, ○○○, ○○○, ○○○, ○○○〉

- 경성고궁 관사로 추정되는 건물터에 신축되는 건물의 높이는 현상변경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며 주변 건물의 높이와 비교할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단, 경성고궁 관사의 역사적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신축 건물에 다양한 방법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의견('16.11.11) / 문화재전문위원 ○○○, ○○○〉

- 사적 제278호인 '구 서울대학교 본관'으로부터 약 85m 이격된 위치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5층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대상지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의대상임.
-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최고높이 19.8m) 주위로 기존 3~5층 높이의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당해 문화재로부터의 시선 차단이 없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8.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현상변경 및 등록 변경

가. 제안사항

- 전북 익산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이전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본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심의 검토 이력이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1차회의('16.01.26) 심의 : 보류
 - * 사유 :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2차회의('16.03.22) 심의 : 부결
 - * 사유 :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등록 말소는 타당하지 않으며, 등록문화재로서 보존·활용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익산시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극 모색 마련할 필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익산시장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문화재 제180호, '05.6.18등록)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중앙로 22-253(중앙동3가 114-2)
- 등록구조/규모 : 조적조 / 1동 2층, 289.26㎡

(3) 신청내용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이전 및 등록 변경

- 이전 내용 : 건축물 등록문화재 1동

(당초)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중앙로 22-253(중앙동3가 114-2)

구조/규모 : 지상2층, 1동, 벽돌조, 연면적289.26㎡

(변경)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중앙동 2가 40-2,-3,-13

구조/규모 : 지상2층, 1동, 벽돌조, 연면적278.60㎡

* 원형과 다르게 증축되어 있는 현황분은 미이전

(4) 소유자(익산시) 의견

- 본 사업은 소유주의 보수정비 반대로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노후훼손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이전복원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 노후 훼손된 등록문화재를 이전복원하여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앙로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하여 익산 근대문화유산을 전시·체험·교육 장소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상변경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7.1.12) / 문화재위원 ○○○, ○○○, ○○○, ○○○, 문화재전문위원 ○○○, ○○○〉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은 2005년 6월18일 등록문화재 제180호로 등록, 보존 관리 되어 왔으나 2016년 소유주가 동 문화재 인접 필지에 대한 재개발 시행(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등록 말소 요청하였고 문화재위원회 (2016.3.22.)를 포함 관계전문가들의 다각적 검토 결과 동 문화재를 이전하여 복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이에, 익산시가 소유주로부터 무상 기부 받아 동 문화재를 인근 지역(기존 위치에서 직선거리 175m 이격)으로 이전, 복원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기존 등록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전 부지가 익산 구 도심 내 '근대문화역사거리'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성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개발 압력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문화재 후면부에 후에 증축된 일부 시설이 기 등록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번 이전, 복원과 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짐.
- 또한, 동 문화재의 벽체 절단, 해체, 운반, 조립 등 전반적인 이전,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 채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들로 '기술지도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이전 및 등록 변경 사항은 원안가결, 등록문화재 이전 사업은 별도 심의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9. 2017년도 근대문화재 보수정비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가. 제안사항

- 2017년도 사적(근대분야)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보수정비 추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7년도 사적(근대분야)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보수정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예산 확정함
 - 1차 평가위원회 : '16.08.25(목) / ○○○, ○○○, ○○○
 - 2차 평가위원회 : '16.12.12(월) / ○○○, ○○○, ○○○,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안전기준과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7년1월 ~ 사업종료 시 까지

○ 사업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 근대문화재과>

총 합 계 : 106건, 17,841백만원 (국비9,375백만원, 지방비8,466백만원)

- 근대사적 : 18건, 2,972백만원 (국비2,080백만원, 지방비 892백만원)

- 등록문화재 : 88건, 14,869백만원 (국비7,295백만원, 지방비7,574백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 안전기준과>

- 등록문화재 : 7건, 300백만원(국비 : 150백만원, 지방비 : 150백만원)

(3)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작성, 사업시행, 사업감독 등

※ 중요사안은 단위사업별로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사업 시행

라. 검토의견

〈근대문화재과〉

- 예산검토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두 차례의 사전 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적정한 사업내용으로 판단됨

〈안전기준과〉

- 등록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2013년 시행)을 통하여 화재에 취약한 구 강경노동조합 등 161개소에 연차적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2017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적(근대분야), 등록문화재]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7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서울	강북구	등록 515	서울 손병희 묘소	묘소 주변 울타리 설치 (설계용역비 포함)	32,500	32,500	65,000
서울	강북구	등록 520	서울 신익희 묘소	펜스설치, 땅고르기 및 잔디보수 자연석석축해체 보수	40,000	40,000	80,000
서울	도봉구	등록 521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마당 마사토다짐 및 배수로 설치	15,000	15,000	30,000
서울	동작구	등록 13	서울공업고등학교 본관	본관 건물 외부 도장	5,000	5,000	10,000
서울	마포구	등록 231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마당 콘크리트철거, 마사토포장, 자연석계단잡이, 배수로정비	5,000	5,000	10,000
서울	서대문구	등록 133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	벽체보수, 지붕해체보수(지붕트러스 및 지붕마감재), 창호 및 흠통 보수	220,000	220,000	44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	서울 독립문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	4,900	2,100	7,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보안사동 누수지붕 보수	14,700	6,300	21,000
서울	성북구	등록 583	서울 흥천사 대방	흥천사 대방 해체 보수	1,000,000	1,000,000	2,000,000
서울	성북구	등록 655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퇴색, 퇴락 목재창호 고색가칠, 퇴색, 퇴락 외부벽면 등 도색, 주출입구기둥 고벽돌 복원보수	20,000	20,000	40,000
서울	성북구	등록 91	서울 돈암장	돈암장보수(누수지붕 및 누수훼손부보수)	375,000	375,000	750,000
서울	용산구	사적 520	서울 용산신학교	전면부 지형복원 및 배수 체계 정비	140,000	60,000	200,000
서울	용산구	사적 521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설계용역(성당 주변 배수로 및 지반정비)	14,000	6,000	20,000
서울	종로구	등록 230	서울 혜화동성당	벽체 균열 보수 및 도장 마감, 누수지붕 보수	210,000	210,000	420,000
서울	종로구	등록 84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	창호 및 마루 보수	5,000	5,000	10,000
서울	종로구	등록 87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 터	지붕기와보수, 마당정비, 창고보수	37,500	37,500	75,000
서울	종로구	등록 93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생활관	생활관외부창호고색가칠 외부조적준보수	11,000	11,000	22,000
서울	종로구	사적 17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지붕 기와 고르기, 보수 설계	21,000	9,000	30,000
서울	종로구	사적 17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귀부균열조사, 충전, 석물세척 주변석물오염물질세척	13,300	5,700	19,000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담장 보수정비	14,000	6,000	2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97	서울 이화장	담장 및 굴뚝 보수, 조경수 정비	280,000	120,000	400,000
서울	중구	사적 157	환구단	지장물 이설, 주변정비, 지형복원 정비	861,000	369,000	1,230,000
서울	중구	사적 253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	종합정비계획 수립	126,000	54,000	18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7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서울		등록 467	전차 381호	전차381호보존처리(외부 도색제거및재도색,내부 천정재도색,하부세척,녹 방지처리,보호코팅,외부 방수처리등),보존처리공 사설계비,형태복원	56,000	56,000	112,000
서울		사적 254	서울 구 벨기에 영사관	목공사,지붕공 현상변경허용기준재조정	126,000	54,000	180,000
대구	동구	등록 266	대구 옷골마을 옛 담장	훼손 담장 보수	42,500	42,500	85,000
대구	동구	등록 303	대구 구 동촌역 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	1,500	1,500	3,000
대구	동구	등록 4	대구 효목동 조 양회관	조양회관 보수	15,000	15,000	30,000
대구	중구	사적 290	대구 계산동성당	조적기등보수,벽체보수	63,000	27,000	90,000
대구	중구	사적 442	구 대구의학전문 학교 본관	건물외벽 도색정비	35,000	15,000	50,000
대구	중구	사적 443	구 도립대구병원	내부 천정, 내벽 미장 철거 및 보수	49,000	21,000	70,000
인천	강화군	사적 424	대한성공회 강화 성당	토지매입	84,000	36,000	120,000
광주	광산구	등록 146	광주 장덕동 근 대 한옥	기와지붕 보수, 배수로 및 배수관정비, 창호단 열 등	85,000	85,000	170,000
광주	동구	등록 94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	정밀구조안전진단	20,000	20,000	40,000
대전	대전시	등록 101	대전 충청남도청 구 관사 1·2·5·6호 와 부속창고	구관사보수(2호,6호) (누수지붕및벽체방수,도장 및내부수장,지장목정비,지 장물철거,설계및감리)	78,500	78,500	157,000
대전	대전시	등록 18	대전 충남청 구 본관	충남청 구 본관 문화재 안내판 정비	50,000	50,000	100,000
경기	남양주시	등록 522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기단석 드잡이, 물탈 기단면 해체 보수	7,500	7,500	15,000
경기	부천시	등록 605	만화 코주부삼국 지	영어 영인본 제작 및 배포	23,000	23,000	46,000
경기	연천군	등록 408	연천 유엔군 화 장장 시설	문화재 기록화 사업	10,000	10,000	20,000
경기	이천시	등록 657	이천 수광리 오 름가마	보호각 설치	70,000	70,000	140,000
경기	파주시	등록 76	파주 구 장단면 사무소	건축물구조보강, 주변지장목정비	212,000	212,000	424,000
강원	철원군	등록 23	구 철원 제일교 회	구조안전진단	15,000	15,000	30,000
강원	철원군	등록 26	철원 승일교	구조안전진단	25,000	25,000	50,000
강원	춘천시	등록 161	춘천 소양로성당	외벽분타일및균열보수, 문짝보수, 문화재안내판 정비(1개소)	17,500	17,500	35,000
강원	태백시	등록 166	구 태백등기소	옥상 방수	13,000	13,000	26,000
강원	화천군	등록 110	화천 꺼먹다리	부식목교체, 교량점검용 사다리등설치 꺼먹다리정밀안전진단	280,000	280,000	56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7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충북	제천시	등록 273	제천 엽연초 수 남취급소	내부 리모델링	120,000	280,000	400,000
충북		등록 55	청주 충북청 본 관	구조보강	400,000	400,000	800,000
충남	공주시	등록 233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건물및지반정밀안전진단 설계용역(석축(옹벽)보강,건물보수)	32,200	32,200	64,400
충남	공주시	등록 472	공주 제일교회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충남	논산시	등록 322	구 강경공립상업 학교 관사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충남	논산시	등록 323	구 강경노동조합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충남	논산시	등록 42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지장물 철거	10,000	10,000	20,000
충남	논산시	등록 601	강경 갑문	문화재 기록화 사업	10,000	10,000	20,000
충남	논산시	등록 602	강경 채운산배수 지	문화재 기록화 사업	10,000	10,000	20,000
충남	논산시	등록 650	강경성당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충남	논산시	등록 650	강경성당	제단원형복원 (기존시설철거,마루,벽체,천정,난간,제의실복원)	75,000	75,000	150,000
충남	서천군	등록 591	서천 구 장항미 곡창고	문화재 기록화 사업	15,000	15,000	30,000
전북	군산시	등록 60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및 보수	350,000	350,000	700,000
전북	군산시	등록 64	군산 동국사 대 웅전	등록문화재(2개소)경관 조명설치,경관조명타당성검토,실시설계	65,000	65,000	130,000
전북	익산시	등록 178	익산 구 이리농 립학교 축산과 교 사	유실된기초부및주변포장 보수,노후훼손조적벽체 보수,창호프레임및부속 철물보수	75,000	75,000	150,000
전북	익산시	등록 180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삼산의원 이전 및 부지 정비	1,000,000	1,000,000	2,000,000
전북	익산시	등록 181	익산 구 익옥수 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지붕 보수, 외벽 보수	30,000	30,000	60,000
전북	익산시	등록 263	익산 함라마을 옛 담장	노후담장 보수	25,000	25,000	50,000
전북	장수군	등록 629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기념관 내 향온함습기 설치(1대)	5,400	12,600	18,000
전북	전주시	등록 172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과 본관 포치	내부 벽돌벽 보수	50,000	50,000	100,000
전북	전주시	등록 174	전주 다가동 구 중국인 포목상점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전북	전주시	사적 288	전주 전동성당	전동성당보수정비설계 현상변경허용기준재조정	42,000	18,000	6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7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전북	전주시	사적 288	전주 전동성당	구조안전진단 재료의 열화조사 분석 및 보강방안연구	45,500	19,500	65,000
전북	정읍시	등록 175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휴게 및 조경공간 조성	33,000	33,000	66,000
전북	정읍시	등록 213	정읍 진산동 영 모재	석축 보수	15,000	15,000	30,000
전북	정읍시	등록 213	정읍 진산동 영 모재	화장실 복원	49,500	49,500	99,000
전북	정읍시	등록 215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안채 벽체(판벽) 보수	8,000	8,000	16,000
전남	강진군	등록 264	강진 한골목 옛 담장	붕괴담장 복구, 담장면, 담장지붕 보수	100,000	100,000	200,000
전남	고흥군	등록 659	고흥 소록도 병 사성당	외벽균열보강및수리 외벽도색,내벽원형복원 설계용역(지붕보수분야)	76,000	76,000	152,000
전남	고흥군	등록 660	고흥 소록도 마 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외벽세척및도색 설계용역(지붕보수분야)	31,500	31,500	63,000
전남	광양시	등록 223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사 개보수 (보수 추가 분)	95,000	95,000	190,000
전남	광양시	등록 444	구 광양군청	누수지붕 보수	10,000	10,000	20,000
전남	구례군	등록 121	구례 구 방광국 민학교 교사	교사 해체 보수 사전 설계	45,000	45,000	90,000
전남	목포시	등록 114	목포 양동교회	지붕반자 원형복원, 전 기보수	46,500	46,500	93,000
전남	목포시	등록 513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지하실 누수보수, 천정 보존처리	50,000	50,000	100,000
전남	목포시	등록 588	구 목포부청 서 고 및 방공호	지붕보수(설계, 가설 포 함) 외벽보수및창호방청도장	24,000	24,000	48,000
전남	여수시	등록 32	여수 구 애양원 교회	내부 천정 해체 보수, 종탑해체 철거	50,000	50,000	100,000
전남	여수시	등록 367	여수 사도·추도마 을 옛 담장	훼손 돌담장 구간 보수	8,500	8,500	17,000
전남	함평군	등록 118	함평 월호리 일 분식 가옥과 창고	울타리 설치	40,000	40,000	80,000
전남	함평군	등록 63	함평 구 학다리 역 급수탑	종합정비계획수립(급수 탑원형복원및주변정비)	15,000	15,000	30,000
전남	화순군	등록 275	화순농협 동부지 점	문화재기록화용역	20,000	20,000	40,000
경북	봉화군	등록 218	봉화 유곡리 근 대 한옥	문화재 안내판 정비	3,000	3,000	6,000
경북	상주시	등록 278	상주 구 내서면 사무소	지붕 및 현관보수	75,000	75,000	150,000
경남	거창군	등록 203	거창 정장리 양 식 가옥	기와해체, 기와와기(설 계비,가설공사포함), 도 장공사(방수및오일스테 인), 안내간판(1개소)	13,000	13,000	26,000
경남	거창군	등록 259	거창 황산마을 옛 담장	담장 해체 및 보수	8,500	8,500	17,000
경남	거창군	등록 259	거창 황산마을 옛 담장	협문보수정비,담장구간 점용 화장실 철거이전 및 담장복원	25,000	25,000	5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7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경남	밀양시	등록 51	밀양 삼랑진역 급수탑	급수탑 물탱크실 및 지 붕보수, 담쟁이제거	63,000	63,000	126,000
경남	의령군	등록 365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50,000	50,000	100,000
경남	진주시	등록 35	진주 문산성당	본당보수(균열,누수,천 정) 강당기와고르기	30,000	30,000	60,000
경남	창녕군	등록 145	창녕 남지철교	창녕남지철교도장보수 가로등보수(14개소) 수목가지치기(3개소)	174,000	174,000	348,000
경남	창원시	등록 198	구 마산현병 분 견대	내부 전시실 조성	84,000	196,000	280,000
경남	창원시	등록 463	백두산함 돛대	돛대부재교체및보존처 리,도색	17,500	17,500	35,000
경남	창원시	사적 291	창원 진해우체국	누수 지붕 보수, 내부 전시실 부식재 보수	147,000	63,000	210,000
제주	서귀포시	등록 156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관개수로퇴적물준설,녹 화식재, 문화재안내판정 비	25,000	25,000	50,000
제주	제주시	등록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고사목 제거 및 제선충 예방약제 주사	41,000	41,000	82,000
제주	제주시	등록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가마오름 녹화정비, 야 외 교육장 정비	150,000	150,000	300,000
제주	제주시	등록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내부 동굴 보강(129m)	108,000	108,000	216,000
제주	제주시	등록 309	제주 서우봉 일 제 동굴진지	일제동굴진지정밀측량및 안전진단, 보존관리방안 연구	100,000	100,000	200,000
제주	제주시	등록 310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조명시설정비,안내및현 황도시설, 안전구조물정 비,탐방로정비	150,000	150,000	300,000
제주	제주시	등록 414	미카형 증기기관 차 304호	증기기관차및탄소차하부 보존처리,내부,외부마감 재정비	90,500	90,500	181,000

2017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국고보조사업 [등록문화재 분야] 세부현황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분류 및 내용		2016년도 확정액		
시도	시군구	종목	지정번호		분류	내용	계	국비	지방비
전북	김제시	등록	제220호	김제 한·일 가옥 종신리 절충식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19,000	9,500	9,500
전북	김제시	등록	제61호	김제 구 일본인 농장 사무소 죽산리 농	소방, 방법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7,000	33,500	33,500
전남	곡성군	등록	제122호	구 곡성역사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30,000	15,000	15,000
전남	신안군	등록	제361호	신안 증도 석조 소금창고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55,980	27,990	27,990
경북	영덕군	등록	제288호	영덕 송천예배당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50,000	25,000	25,000
경북	포항시	등록	제373호	포항 근대 한옥 오덕리 한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58,190	29,095	29,095
경남	남해군	등록	제234호	남해 하천재 덕신리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20,000	10,000	10,000

검 토 사 항

10. 「천주교 둔율동 성당」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천주교 둔율동 성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천주교 둔율동 성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천주교 둔율동 성당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둔율동)
 - 소유자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516.36㎡
 - 건립시기 : 1955년
 - 구조 : 벽돌 조적조 / 목조트러스
- (3) 신청내용 : 천주교 둔율동 성당의 문화재 등록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10. 27.)>

- 문화재위원 ○○○
 - 1929년 나바위성당에서 분리되어 군산 본당으로 설립된 성당으로, 원래 일제강점기에 세웠던 목조 성당건물이 있었으나 소실되고 1955년에 현재의 건물로 신축하였음.
 - 건물 내부는 최근 원형과는 다른 형태와 재료로 마감되어 있으나, 천정 위의 지붕구조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벽돌조적과 목조트러스가 온전하게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원형이 유지 관리되고 있음.
 - 성당 신축공사 당시의 성도들의 헌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건설지 등 기록과 함께 관련 도서와 자료 일체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는 드문 사례로 여겨짐

○ 문화재전문위원 ○○○

- 1955년 신축된 둔율동 성당은 한국전쟁 이후에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건축기술을 따르지 않고, 전 시기인 일제강점기의 건축양식(조적식 구조와 목조트러스 등)을 따르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본 건물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근대문화의 상징 공간 중 한 곳인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축된 본당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근대건축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음)
- 또한 본당신축 당시 기록을 잘 정리하여 ‘축성기’ 기록물로 잘 보존하고 있고, 설계자가 분명한 당시 건축설계도면이 함께 남아 있어 당시 건축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등록할 경우 이들 자료를 건물과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시기에 건립된 천주교 성당과 비교해 둔율동 성당이 갖는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최초 건립 단계에서 신부에 의해 직접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현재까지도 실존 건물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등록문화재와의 차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현재의 성당 벽체가 시멘트 몰탈로 치장되어 있으나, 최초 건립 시에는 지역적 특징이 있는 건축재료(장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슬러지 벽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며, 또한 성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신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을 통해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군산 둔율동 성당과 성전 신축기를 함께 등록하는 것을 검토)

○ 출석 5명, 원안가결 5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천주교 둔율동 성당 (구) 군산성당
2. 용 도 : (현) 천주교 성당 (원) 천주교 성당
3.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4. 소유자 : (재)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조+목조트러스
- 준공일 : 1955년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516.36㎡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07.08.)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29년 나바위성당에서 분리되어 군산 본당으로 설립된 성당으로 1961년 11월 행정구역명에 따라 둔율동본당으로 개칭되었다.
- 원래 일제강점기에 세웠던 목조 성당건물이 있었으나 소실되고 1955년에 현재의 건물로 신축하였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외관은, 과도하지 않은 뾰족 아치창으로 고딕양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종탑부의 창과 주출입구의 아치는 반원형 아치를 하고 있고 건물 전체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수평성이 강한 돌쌓기가 외부를 마감하고 있고 부축벽 또한 피나클(소첨탑)을 두지 않아 로마네스크의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내부는 매우 퇴락하여 최근에 개조하였는데 원형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재료로 마감되어 있다. 하지만 천정 위의 지붕구조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벽돌조적과 목조트러스가 온전하게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원형이 유지, 관리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성당의 사무실에서는 1955년 신축공사 당시의 건축설계도(許鏞 建築事務所 作)와 건축기, 건축허가서류 등, 건축 관련 도서와 자료 일체가 보관되어 있어, 1950년대 이 지역의 건축설계, 공사 관련을 파악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통상적인 가톨릭 성당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군산지역 둔율동 언덕 위에서 오랫동안

안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유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성당 내에 별도의 역사전시실과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어 지금까지 보관되어 온 사료들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영인작업과 보존처리 작업을 거쳐 한국 가톨릭 역사의 사료와 한국 근대건축 건설사의 자료로서 잘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강원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 한국전쟁 직후 미군이나 한국군대의 원조를 받아 축성된 성당은 다수 있어 등록된 문화재가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의 헌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건설지 등 기록과 함께 남아 있는 경우로서는 드문 사례라고 여겨진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따라서 성당건물과 함께 관련 도서 및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산 둔율동 성당 및 축성관련 서류” 등록하여 지역사 및 한국근대건축 기술사의 자료로 활용하는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군산 둔율동 성당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등록신청한 둔율동 성당은 군산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5년 신축된 군산 최초의 성당건물로 현재 군산 시내 9개 본당의 모태 성당이 되었다.
- 1900년부터 본당설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29년 신자수가 250여 명에 이르러 드망즈 주교가 김영구 신부를 나바위 성당 보좌신부로 임명하여 군산본당 설립을 본격화하였다.
- 1930년 둔율동 군산 보통학교 옆의 대성원을 매입하여 성당으로 개수하고 부속건물을 사제관 및 기타시설로 사용하였다. 1931년에는 군산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어 군산 천주교회로 불리웠고, 초대신부로 김영구 신부가 부임하였다.
- 1944년 현재의 성당 부지를 마련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1955년 8월 현재의 성당 건물을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 현재 당시 공사에 관련하여 축성기와 설계도서가 함께 보존되고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축성기에 의하면
대지조성 : 1954년 8월 7일 ~ 1954년 12월 6일
건축면적 : 176평 (1층 146평, 지하 30평)
건축설계 : 허만 (남산동 허만건축사무소), 기본적 개념은 서정수 신부
건축주 : 서정수 (7대 주임신부)
설계비 : 19,000원 (성전 15,000원, 사무실 4,000원)
건축허가 : 1955년 3월 29일
공사착공 ~ 준공 : 1955년 3월 11일 ~ 1955년 8월 16일
강복식 : 1955년 8월 17일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성당건물은 구릉지 상부에 대지를 조성하여 건축하였으며, 20여 단의 계단을 통하여 진입하도록 계획하였다.
- 로마네스크양식의 조적식 건축물로 본당 내부를 기둥이 없이 하나의 장방형 평면으로 구성하고, 진입부에 정방형 평면의 전실을 두고 전실의 상부에는 종탑을 두었다.
- 본당 후면으로 본당보다 조금 작게 사제관을 덧붙여 만들되 건물내부에서 연결되지 않고 외부로 돌아가도록 처리하였다.
- 건물 중앙에 위치한 전실종탑은 정방형 평면을 좀차 좁혀 3층으로 만들고, 그 위에 반원형 아치를 이용한 8각형의 첨탑을 만들어 성당의 상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건물의 정면 1층 전실은 커다란 반원형 아치(중앙 키스톤에 준공년도 기록)로 구성하고, 2층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한 원형창을 두었으며, 종이 위치한 3층에는 반원형 아치 쌍창을 두었다. 건물 전면 외벽에 천주교에서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A' 'Ω' 글자를 돌음새겨둔 것도 독특하다.
- 1955년 준공 당시에는 붉은 벽돌로 구조체를 만들고 마감하였었지만, 이후 벽돌 외부로 인조석을 덧대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 건물의 양 측면은 12 베이(Bay)로 구획하고 측면현관을 제외한 각 베이마다 첨두형 아치 형식의 기다란 창호를 배치하였다.
- 지붕은 왕대공 형식의 목조트러스 위에 널판을 대고 그 위를 함석으로 마감하되 거멸접기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5년 신축된 본관건물은 그 형태는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나 외부마감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내부는 최근 리노베이션 공사를 통하여 현대식으로 개조하였다.
- 건물의 상태는 관리를 잘하여 큰 손상이 없이 관리되고 있고, 지붕속 목조트러스 역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주임신부님과 신도들은 본 성당이 군산에 세워진 최초의 성당이라는 점에서 문화재 등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등록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관리여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 군산 원도심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근대문화유산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본당에서 주변으로의 시경관이 좋은 편이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성당의 본당으로 건축된 건물로 현재도 성당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활용계획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원도심과 가까이 위치한 본 성당에는 김대건신부님의 유해를 비롯한 성자들의 유해 및 기타 성당의 역사자료들이 많은 편이어서 근대군산 역사자료와 연계하는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전라북도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성당은 없다.
전주 전동성당과 익산 나바위성당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어은공소(등록 28)와 수분공소(등록 189)가 등록문화재임.

- 충청남도 : 성당 2개소와 공소 1개소가 등록문화재임
동문동 성당 (등록 321), 강경성당 (등록 650), 상흥리공소(등록 338)
- 전라남도 : 성당 3개소가 등록문화재임
노안성당 (등록 44), 함평성당 (등록 117), 소록도 병사성당 (등록 659)
- 이들 문화재 성당/공소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것으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건축적 특성과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강경성당의 경우는 현대적 구조형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유로 등록된 것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 신청한 둔율동 성당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 신축된 건물로 외형으로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마감은 바뀜) 있음.
- 일제강점이 이후 5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는 시대적 지역적 건축특성을 담고 있는지 혹은 당대 역사적 사실/인물 등과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 성당건물은 한국전쟁 이후에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건축기술을 따르지 않고, 전시기인 일제강점기의 건축양식(조적식 구조와 목조트리스 등)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건물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 다만, 근대문화의 상징 공간 중 한 곳인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축된 본당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근대건축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음)
- 또한 본당신축 당시 기록을 잘 정리하여 ‘축성기’ 기록물로 잘 보존하고 있고, 설계자가 분명한 당시 건축설계도면이 함께 남아 있어 당시 건축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등록할 경우 이들 자료를 건물과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 정면중앙에 반원형 아치로 팔각종탑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다른 성당과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군산 둔율동 성당’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둔율동 성당은 1915년경 군산 공소(둔율동 군산보통학교 옆)로 시작, 1931년 1월 본당으로 승격된 이후 1944년에 현재의 부지로 옮겨 오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교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1954년 7월 17일 새로운 성당 신축 계획을 세운 후 1955년 3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1955년 8월 17일 준공 되었다. 새로운 성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당시 주임신부이었던 서정수 신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성당 내 보관되어 있는 ‘성전신축기(聖殿新築記)’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1955년 둔율동 성당의 준공에 맞춰 성금모금, 공사비, 공사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속에는 당시 주임신부이었던 서정수 신부가 직접 프리핸드로 성당의 정면 등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둔율동 성당은 완만한 구릉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一자 형태의 바실리카식 형식으로 건축되었다. 정면 중앙부에는 첨탑을 높이 세웠으며 상부에는 반원아치의 창호, 하부에는 장미창을 설치하였고 출입구 상부에는 반원아치로 장식하였다. 또한, 첨탑 상부에는 동판을 얹은 종탑부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8개의 갤러리 아치를 두었다. 성당의 벽체는 시멘트 몰탈로 치장되어 있으나 이는 1960년 외벽 마감 공사를 통해 변경된 것이며, 본래는 인근 장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슬러지 벽돌(내화벽돌)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신도들이 슬러지 벽돌의 색상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되어 그 위를 시멘트 몰탈로 치장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부 벽체에서는 과거 벽돌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후·좌·우벽면에 설치된 첨두아치의 창호 역시 본래의 모습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성당 내부의 예배공간은 네이브, 아일 구별 없이 하나의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초 건립 당시에는 입구부분에 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2층 발코니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단 뒤쪽 벽면에는 3개의 반원아치와 이를 받치는 기둥을 돌출시켜 장식하였으나 1971년 내부 수리 과정에서 모두 제거하고 현재와 같이 치장벽돌로 마감하였다. 성당이 완만한 구릉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형을 이용하여 제단 하부에 반지하층을 두어 사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내부 바닥은 나무 바닥에서 인조석 물갈기로 교체되었고 천정 역시 평천장에서 현재와 같이 좌, 우 양측을 2회 굴절한 형태로 바뀌었으나 지붕구조는 당초 트러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후, 성당 및 종탑 지붕 동판 교체, 방수공사 등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건립 당시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둔율동 성당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 중의 하나인 외벽의 마감재(슬러지 벽돌)가 변형되었고 내부구조 및 마감재는 수차례 교체, 수리 등을 통해 원형의 모습이 다소 훼손되었다. 다만, 현재 계속해서 성당으로 사용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성당 측에서는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성당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향후에도 성당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과거 서양 및 일본인들이 아닌 지역민들에 의해 직접 건립된 성당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근대시기에 건립된 천주교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여러 지역에 걸쳐 다

수 존재한다. 이들과 비교해 둔율동 성당이 갖는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최초 건립 단계에서 신부에 의해 직접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현재 까지도 실존 건물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기 등록문화재와의 차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현재의 성당 벽체가 시멘트몰탈로 치장되어 있으나, 최초 건립 시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건축재료(장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슬러지 벽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며, 또한 성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신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을 통해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군산 둔율동 성당’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11. 「제주 한림청장(웅포별장)」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한림청장(웅포별장)」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림청장(웅포별장)」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한림청장(웅포별장)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8-5
 - 소유자 : ○○○ 외 1인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128.92㎡
 - 건립시기 : 일제강점기
 - 구조 : 일식목조
- (3) 신청내용 : 제주 한림청장(웅포별장)의 문화재 등록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11. 8.)>

- 문화재위원 ○○○
 - 1929년에 건축된 일본식과 서양식이 결합된 주택으로, 이러한 유형의 유구가 한국 주거건축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이렇다 할 현상을 찾기 어려우며,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기에 훼손과 열화(劣化)가 극도로 심하여 복원과 수리에 상당한 노력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일식목조와 시멘트 벽돌 조적벽체가 결합된 일식주택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고 훼손정도가 심각해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또한 각종 고증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건물이력을 명확하게 확인,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주택의 초기 모습을 되찾아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지가 확고하나 1990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면서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대부분 상실한 상태이고,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을 제외하고는 기 등록문화재에 비해 그 가치가 미미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5명, 부결 5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옹포별장 또는 한림청장(翰林淸莊) (구) 옹포별장 또는 한림청장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3.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8-5

4. 소유자 : ○○○/○○○ 공동소유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일식목조
- 준공일 : 일제강점기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128.92㎡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11.07)

<문화재위원 ○○○>

1) 개요

- 일제강점기 제주도 경찰청 경무보였던 일본인 이시카와 겐지로(石川權次郎)의 별장으로 1929년 건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립 당시에는 일본과 제주도 각지에서 200여종의 수목을 이식하여 정원과 연못을 꾸몄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1949년에 이시카와의 처인 이순선이 소유자가 되었고 그 후 그의 외손녀가 소유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평면을 살펴보면 일본식의 주거공간(목조)과 서양식의 서비스 공간(부엌, 역실, 화장실 등 -철근 콘크리트 조)이 중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외벽은 전체적으로 시멘트 벽돌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준공당시의 재료라면 육지보다 이른 시기에 시멘트 벽돌이 사용된 사례이며 서비스 공간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역시 일본인 경찰의 주택이었기에 세심한 배려에 의해 특별히 마련된 장치들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부는 전형적인 일본식 공간구성과 창호, 수납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관 옆에는 응접실을 마루방으로 두어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응대하는 공간을 두어 공적, 사적 공간을 구분해 둔 특징도 볼 수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반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유구들이 남아 있기는 하나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에 보존상태는 위험하며 열악한 상황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경찰간부를 위한 관사에 해당하는 유구이다(소유주는 외할아버지인 이시카와 씨가 개인적으로 지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 후손이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정도 심하여 복원과 수리에는 상당한 노력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주는 문화재로 등록되고 복원이 이루어지면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피력하고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막연한 계획설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일종의 부정적 유산으로 간주하고 “기억”해야 할 유구로서 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일본식+서양식 결합, 일본식 정원 등)의 유구가 한국 주거건축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자면 이렇다 할 현상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네거티브 헤리티지인 군사시설물 유구(진지동굴, 아르뜨르 비행장 등)와는 다른 개인 사택이기에 문화재로서 크게 의미를 들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기에 훼손과 열화(劣化)가 극도로 심하여서 복원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관련 국가기관에서 부담할 것 까지 감안한다면 더욱이 문화재로 다루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크다 할 것이다. 단, 인근지역과 소유주 친인척들의 추억과 애착이 깃든 곳이라면 사적인 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일제강점기 제주도경 경무보 이시카와 겐지로가 살았던 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때는 한림청장(翰林淸莊)이라는 명칭으로 지칭되었던 일식주택.
- 신청서에 건축연도가 1929년이라는 내용과 이시가와 겐지로가 1930년대 후반 부임한 후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건축연도가 혼동되고 또한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어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
- 광복후 제주를 방문한 VIP들의 숙소 역할을 하였고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이 묵었다고 하나 명확한 근거자료는 없는 상태.
- 1960~70년대 후반까지 식당 또는 숙박시설로 이용되었으며, 정원이 특히 아름다워 지역학생들이 소풍을 오거나 주민들의 야유회를 하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었다고 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기본적 구조체는 일식목조로 구성하였지만 벽체는 일반적 일식목조 주택과는 달리 시멘트 벽돌 위 시멘트 모르타르 뽀칠로 마감하였으며, 벽체는 제주도 해변의 검은모래(烏沙)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이용하여 두께 45cm 정도로 견고하게 구축.
-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슬레이트 마름모 잇기로 마감하였으며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정면 현관 전면에는 콘크리트조의 상부 캐노피와 하부 기둥을 설치.
- 내부는 중북도 양측에 다다미방 형식의 실들을 배치하고 다다미방, 오시이레(押入

れ), 도쿄노마(床の間), 가미다나(神棚), 란마(欄間) 등의 일식주택 구성요소를 갖추며 전형적인 일식주택 내부공간을 구성.

- 주방, 창고, 욕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건물의 우측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달리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평지붕으로 구성되었으며,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건축형식이 상이하어 후에 증축된 것으로 추정됨.
- 건물 주위 외부공간에는 자연석으로 쌓은 일본식 신단(神壇), 조경석, 식재 등 일본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변형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형식이 다른 건물 우측의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평지붕 부분은 후에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증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 그동안 30여년 동안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현재는 주택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특히 목재로 구성된 부분은 노후화와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주는 현재 신청건물을 포함한 넓은 부지에서 별동의 건물을 중심으로 응포가든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청건물에 대한 보존관리 상태는 매우 부실하였지만 등록후 보수, 복원하여 보존, 활용할 계획을 제시.
- 조경이 양호한 넓은 부지내에서 식당건물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등록시 문화재 보존관리를 저해할만한 주변 환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신청서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록문화재로서 구체적이고 적절한 활용계획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일식주택은 다수가 등록되어 있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이승만 별장(등록문화재 제113호)이 유일한 사례이며, 신청건물은 일식주택이지만 일식목조와 시멘트 벽돌 조적벽체가 결합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신청건물은 일제강점기 건축된 일식주택으로 일식목조와 시멘트 벽돌 조적벽체가 결합된 일식주택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노후화와 훼손정도가 심각한 상태.
- 건축원형, 건축년도, 개보수 및 증축여부 등 건물이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명확한 고증자료가 없이 소유주 및 친인척의 주관적 구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확인과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 신청건물은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고 훼손정도가 심각해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또한 각종 고증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건물이력을 명확하게 확인,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오늘날 제주도에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몇 동의 일본식 가옥이 남아 있다. 등록 신청된 이 주택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일본식 가옥으로 일본 경찰의 고위 간부인 ‘이시카와 겐지로’가 1930년대 후반에 이곳으로 부임한 후 별장의 용도로 건립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한때 ‘한림청장(翰林淸莊)’으로 불리었다고 하나, 현재는 행정구역 명칭(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따라 ‘옹포별장’으로 통칭되고 있다. 광복 이후 김구선생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쳐하였던 곳으로 전해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기록과 증거는 없다. 현 소유자 즉, 이시카와 겐지로의 외손녀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가옥 주변으로 일본식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다고 하나 1990년 이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현재는 정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주택의 내·외부 또한 훼손 정도가 심하여 현 상태로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이 주택은 전체적으로 건립 당시의 원형으로 보이는 정방형의 본채와 나중에 우측면에 세로방향으로 길게 덧붙인 부속채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의 경우, 평면구성 방식에 있어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일본식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소위, 속복도를 중심으로 좌, 우에 각 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복도 바닥에는 장마루로 깔았으나 현재 훼손 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속복도와 연결되는 현관의 우측면에 접객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 배치된 것과 실 내부의 구조(도코노마, 란마 등)등은 이 시기 다른 지역에 건립된 일본식 가옥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본채의 구조는 목조 뼈대에 시멘트벽돌로 벽체를 쌓아 마감하였으나, 벽돌의 마감 상태로 보아 최초 건립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린 뒤 외벽에는 시멘트 몰탈로 덧칠을 하였으며 내벽은 그 위에 회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천정은 훼손 정도가 심하여 마감 재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부 실의 경우에는 석고 플러스터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모임지붕으로 슬레이트로 마감하였으며, 출입구 상부에는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아래는 기둥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건립된 일본식 가옥들이 대부분 붉은색 벽돌을 사용한 것과 달리 이 가옥에서는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외벽을 비교적 두껍게 쌓은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현 소유자의 증언에 의하면, 시멘트 벽돌은 서귀포 화순 일대에서 채취해 온 검은모래(烏沙)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 부속채는 철근 콘크리트조 위에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으며 내부에는 온수 공급을 위해 솥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현재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외부에 굴뚝 시설은 남아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1990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26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일부 구조체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내부 복도의 마루와 창문, 기타 목부재 등은 이미 노후화된 상태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현 소유자는 이 주택의 건축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아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주택 상태에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에서 현 소유자가 ‘옹포별장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

점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활용과정에서 증·개축 등에 따른 현상변경이 우려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이 주택과 유사한 일본식 주택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유산은 군산, 목포, 부산 등 전국적으로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차별성, 건축적·학술적 가치, 보존 상태 등의 측면에서 기 등록 문화재에 비해 그 가치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주택의 초기 모습을 되찾아 보존, 관리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지가 확고하나 1990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면서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대부분 상실한 상태이며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을 제외하고는 유사 사례와의 차별성 및 문화재적 가치 등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당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12.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0-1번지
 - 소유자 : ○○○ 외 2인
 - 수량 : 8동(안채 2동, 곳간채 2동, 중문채, 행랑채, 대문, 문간채)
 - 면적 : 2,112㎡
 - 건립시기 : 1880년대
 - 구조 :
- (3) 신청내용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의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11.15.)>

- 문화재위원 ○○○
 - 구한말 호남의 5대 지주 김종익, 문재철, 현준호, 김충식, 조희경 가옥 중에서 유일하게 이 조희경 가옥(본 신청가옥)만이 옛 모습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차남의 집은 남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 다른 관계로 등록신청하지 못함)
 - 영남지역의 집성촌 문화재, 민속마을들과 비교하여도 그 가치와 보존상태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유구이며 건축구법의 성격 등의 요건으로 볼 때,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지방지정 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대상으로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조선 말기인 1880년대에 건축된 가옥으로 사랑채, 안채, 중문간채 등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상류주택의 형식을 보여주는 외에 당시 호남지역 부농의 가옥으로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존하는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들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 근대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진사댁의 경우 근대시기 의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근대 한옥 의원의 가치와 의미에 기초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동일한 경내에 위치한 참봉댁은 건립 취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으므로 시·도문화재자료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5명, 원안가결 5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구)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2. 용 도 : (현) 주거 (원) 주거+병원(부분)

3.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0-1 번지 외 5필지

4. 소유자 : ○○○ 외 2인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구조, 한식기와
- 준공일 : 진사댁(1880년대) / 참봉댁(1903년)
- 수량 및 면적 : 일곽(8동) / 640.51㎡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11.15.)

<문화재위원 ○○○>

1) 개요

영광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의 본관은 창녕으로, 그의 18대조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영광으로 유배된 것을 계기로 대를 이어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영광지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문이다.

19세기 후반에 전북 흥덕, 용안의 현감을 거쳐 법성진 수군첨 절제사를 지낸 조병무가 선대로부터 기거하던 이 터에 현재의 가옥들을 건축하였다. 그 아들 조강환(1851-1910)은 1891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비서원승을 지냈으며 한말에 예조참판, 홍문관 부제조에 제수되었으나 고사하고 한일합방 직전에 울분으로 병사하였다. 조병무에게는 장남 조희창, 차남 조희경, 삼남 조희양이 있었는데 장남은 요절하였다. 조병무의 차남 조희경(1876-1938)은 1902년 성균관박사로 제수되었고 한일합방이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 후 (주)조일비누 설립(1918), 영광수리조합장(1923), 영법전기주식회사(화력발전소) 설립(1925) 등 지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일에 매진하였다. 조희경의 동생 조희양도 15세 때 진사에 급제하여 이후 군기창 기사로 근무하였지만 그 역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낙향하여 의병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남 조희창이 요절함에 따라 차남 조희경의 아들 조설현이 대를 잇게 되는데 그는 1913년생으로 신간회 자금조달책, 해동은행 인수, 조선일보 인수 상무 취제역, 동아일보 창립발기인, 경성방직 창립발기인, 초대 전무 취제역, 조일비누공업 인수, 소작료의 평봉을 초기에 시행한 개명지주로서 지역사회에 발전과 근대화에 열정을 쏟았던 인사이다. 조설현의 아들 조영규는 1913년생으로 제헌국회의원을 거쳐 제3대, 4대, 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조영규의 아들 조기상은 제11대, 12대 국회의원과 정무장관을 지냈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가문이 생활하였던 고택이 19세기-20세기 초에 연이어 지어지며 문중 주택군을 형성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1880년대에 조병무가 본래의 안채를 지었고 여기에서 그의 아들 조강환이 같이 기거

하다가 강환의 큰아들 조희창이 이 집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혼인, 분가하는 조희경, 조희양을 위하여 두 채의 집을 인접대지에 건축하였다.

따라서 세 집의 안채와 사랑채 등의 규모와 평면구성은 비슷하다. 다만 장남(조희창)의 집은 다른 사람 집의 사랑채를 매입하여 안채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차남, 삼남의 안채와는 다른 평면을 하고 있으며 후에 지은 두 집의 안채 평면구성은 고평집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가옥들의 일부는 1970년대에 병원으로도 사용한 적이 있으며 공간은 한 때 여인숙으로 활용한 때도 있어 시대에 따라 주거의 활용변천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빈집 상태의 기간이 있었으나 정기적 관리에 의해 대체적으로 건물의 상태와 건물배치의 관점에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가구 및 생활도구도 오전하게 보존되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소유주와 지역민의 지속적 관리로 건물의 유지와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구로서 마을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 등과 함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소유주의 열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은 아주 높음.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구한말 호남의 5대 지주 김종익, 문재철, 현준호, 김충식, 조희경 가옥 중에서 유일하게 이 조희경 가옥(본 신청가옥)만이 옛 모습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차남의 집은 남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 다른 관계로 등록신청하지 못함)

영남지역의 집성촌 문화재, 민속마을들과 비교하여도 그 가치와 보존상태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유구이며 건축구법의 성격 등의 요건으로 볼 때,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지방지정 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대상으로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신청된 8채 (유구의 근대성에 대하여 고찰하자면 대지 남쪽 도로에 면해 있는 근대식 2층 건물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① 영광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 ② 영광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일곽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등록신청한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영광군 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880년대에 조병무가 건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안채 상량문에는 융희3년(1909년)의 묵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병무대에 초창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조강환이 새로 수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처음 건축할 당시에는 장남택이었던 본 가옥만 있었으나 후대에 조강환의 둘째 조희경과 셋째 조희양을 위하여 두 가옥을 지어 물려줌으로써 세 가옥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었다. (삼남집 참봉택 안채 상량문에 隆熙3년 1909년 기록) 그리고 장남인 희창이 요절함에 따라 본 가옥은 둘째인 희양의 아들 조설현에게 물려받게 되었다.
- 그렇지만 현재는 둘째 가옥은 없고, 장남택인 본 가옥과 이웃한 셋째 가옥(일부 안채와 곳간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창녕 조씨 가문의 가계를 승계하였던 조설현은 물려받은 토지자산을 산업자산(조일비누)에 투자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 조선시대 말기에 건축된 상류가옥으로 당대의 지역적 건축특성과 생활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김광언의 논문에 의하면 본 가옥의 안채는 남의 사랑채를 매입하여 안채로 개조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는 편의상 조씨네 집안에서는 장남의 집을 진사택, 둘째네 집을 박사택, 셋째네 집을 참봉택이라 부른다 함)
- 해방 이후 한국전쟁때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고, 1979년에는 큰 가로에 면한 곳을 병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안채 곳을 여인숙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간적 변용이 부분적으로 있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문간채 상량문에는 1975년으로 기록)
- 1990년대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건물의 멸실되었고, 지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배치

전체적으로 본 가옥은 동서가로의 북쪽에 위치하여 남향하고 있으며, 1975년에 건축된 대문간채와 대문간채를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사랑채와 바깥마당이 외곽부를 구성하고 다시 一자형 중문간채와 곳간채를 지나면 ㄱ자형의 안채가 남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 안채

안채는 정면 7.5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지붕(겹처마) 건물이다. ㄱ자형 평면으로 부엌(2칸) 안방(2칸) 대청(2칸) 작은방(1칸)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부엌 앞쪽으로 정지방(2칸)과 1.5칸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여 돌출시켰다. 기본적으로 조선말기 호남지역 안채인 一자형 평면에 정지방을 앞으로 돌출시켜 특이한 평면을 구성하였다.

중앙 대청 후면에 위치한 퇴칸에는 상부에 감실을 만들어 위패를 모시고 제구를 보관하고 하부는 골마루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안방과 건넌방의 후면 퇴칸에도 역시 골방을 만들었으며, 특히 부엌 상부 다락방으로의 출입문을 안방의 후면 퇴칸에 마련한 것이 특이하다. 조선후기 수납공간을 비중을 넓히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부엌은 다른 가옥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상부에는 부분적으로 다락을 설치하였다. 외부에 접하는 서측면과 배면 상하부에 살창을 설치하여 환기와 통풍을 고려하였다. 부엌 뒷마당에는 후에 만들어진 듯 2칸의 목욕공간이 있는 것도 근대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면 2열의 모든 기둥과 대청 후면 2열 기둥을 모두 원기둥을 만든것도 다른 가옥에서는 볼수 없는 것인데, 김광언이 언급하였듯이 다른 가옥의 사랑채를 옮겨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사랑채

정면 4칸 측면 2.5칸 규모의 팔작지붕(겹처마) 건물이다. 일자형 평면으로 현재는 전체적으로 배면으로 약 반칸 정도 증축되어 완전한 겹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원래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전후에 퇴칸이 있는 평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 2칸과 서쪽의 2칸의 간사이를 다르게 한 것이 특이하다. 병원 입원실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마루방을 온돌방으로 고치고 겹집으로 만드는 등의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에 따라 평면과 지붕가구 구조형식이 서로 맞지 않게 되었다.

○ 중문간 행랑채 및 곳간채 등 부속건물

정면 4칸 측면 1칸의 중문간 행랑채(우진각지붕)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곳간채(맞배지붕)는 서로 이어져 있지만 공간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중문간행랑채의 동쪽 2칸은 하인들의 거주공간이고, 서쪽 2칸은 출입공간으로 안채쪽 내외담(현재는 허물어짐)과 함께 내외공간 구획을 위하여 꺾어 들어가도록 하였다.

곳간채는 본 가옥의 가장 특징적 공간 중 하나로 김광연의 기록에 의하면 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며, 그에 따라 서쪽 1칸의 살창은 나무가 아니라 철재로 만들어져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세기 후반에 신축된 본 가옥은 건축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가옥을 구성하고 있던 부속건물들과 담장 등이 이미 멸실되거나 퇴락하여 전체 배치가 예전과는 많이 변형된 상태이다.

○ 근세에 들어 가로변에 면한 본 가옥 사랑채 영역을 병원으로 사용한 까닭에 기존 대문간채와 사랑채 부속건물 등이 멸실되기도 하였고, 사랑채는 무리한 증축을 한 까닭에 공간이 많이 변형되고 구조형식을 변경하여 건물 일부가 붕괴되기도 하였다.

○ 안채의 경우는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까래와 부연 등 건물의 많은 부재가 노후화되고 부식된 상태이다.

○ 본 가옥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3남집(참봉댁)의 안채는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당시 건축기법을 부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소유자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한 편이다. 현재 가옥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까닭에 전체적으로 보수 수리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문화재 등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본 가옥에 대한 보존의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 본 가옥이 위치한 영광읍은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IC가 5km 인근에 있고, 광주광역시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또한 불교의 최초 전래지로 알려져 있는 범성포가 10km 정도 떨어져 바다로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 다만 영광읍내에 문화재가 거의 없고 영광향교가 시도유형문화재 125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본 가옥이 위치한 동서가로(현암길)가 일제 강점기에 영광읍내의 주요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비교적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는 편이고,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기도 하다.

○ 연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가옥(진사댁)과 함께 박사댁, 참봉댁이 함께 어우러져 읍내 중앙에 전통적 경관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현재 박사댁과 안

채만 남고, 참봉댁은 안채와 곳간채만 남아 있어 그러한 경관이 사라지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제출된 보존활용계획서에 의하면 본 가옥은 숙박시설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본 가옥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한옥체험과 향토음식 체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영광의 관광객들을 위한 고급 숙박시설로서 한옥스테이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이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전라남도에서 가옥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선교사들의 활동과 관련 있는 가옥, 다른 하나는 일본식 가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기에 활동한 우리나라 인물과 관련된 가옥, 이렇게 구분되는 세 가지 유형의 가옥은 모두 당대 건축기술과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 조선 말기에 건축된 전통한식 목조가옥 대부분은 지정문화재로서 국가지정인 중요민속자료 혹은 지방지정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전통한식 목조가옥 중에서 도심지(읍내 등)에 위치한 경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개발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지정문화재가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 본 가옥의 경우도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가옥은 아니지만 가옥의 주인이었던 조희양(1881~1931)은 일제강점기에 영광, 나아가 전남의 손꼽히는 대지주 가운데 한 명이였다. 1930년 현재 전남에서 100정보 이상 500정보 미만 조선인 대지주는 99명인데, 조희양이 소유한 토지는 221정보였다. 그는 이상의 토지를 바탕으로 한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여 범성포물산(주)·목포창고금융(주)·조일비누(주)·(주)해동은행·동아고무공업(주)·전남신탁(주)의 설립과 경영 등에 참여했다. -> 조희양 지적도 (고문서 DB)
- 본 가옥은 비록 그 구조는 전통한식이지만 공간구성과 활용 및 가옥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건물 등은 일제강점기 근대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 신청한 관해공 가옥은 조선말기인 1880년대에 건축된 가옥으로 사랑채 안채 중문간채 등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상류주택의 형식을 보여주는 외에 당시 호남지역 부농의 가옥으로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안채의 공간구성 중 부엌에 접한 정지방과 상부 다락방 및 부엌 뒤편의 목욕실 등은 기존 전통가옥의 평면과 다른 근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안채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 각 실마다 뒷골방과 골마루를 구성한 것도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원래 세 가옥이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었고, 그러한 경관이 잘 유지되었다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본 가옥만이 원래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아쉽다.

- 문화재 등록시에도 어차피 세 가옥이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아쉽기는 하지만 본 가옥(진사댁)을 대상으로 하고 3남집(참봉댁)은 제외시켜 문화재 영역과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현재 영광농업기술센터에 보존되고 있는 조희양 관련 고문서는 그 카피본을 제작하여 본 가옥의 일부공간에 전시하여 당시 가옥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안중식 화백의 ‘영광풍경’ 그림 역시 카피본으로 이곳에 전시하는 것도 가능)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고택’
- 최근 중요민속문화재 명칭 변경기준에 맞춰 관해공 고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등록신청 된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소유주의 고고조부인 조병무와 고조부인 조강환이 1880년대 전·후로 대를 이어 진사댁(택호), 박사댁(택호), 참봉댁(택호)을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일곽을 구성하고 있다. 즉, 고고조부 조병무가 최초 진사댁을 건립한 뒤 고조부인 조강환대에 이르러 세 아들(첫째 조희창, 둘째 조희경, 셋째 조희양)을 위해 첫째 아들이 거처하는 진사댁에 인접하여 둘째 아들의 박사댁과 셋째 아들의 참봉댁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후, 현 소유주의 증조부인 조희경의 아들 조설현대에 이르러 가문이 몰락된 것을 생부인 조영규가 되찾았다고 한다. 조부인 조설현은 1920년대 독립운동가 신석우를 도와 ‘조선일보’의 이사진에 참여하였으며, 생부인 조영규는 중국 북경대 재학 중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조영규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선총독부 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진사댁에 의원을 개업하여 1986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오늘날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경내에는 진사댁과 참봉댁만이 현존하여 그 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박사댁은 20세기 중반에 소실되어 빈 터만 남아 있다. 이밖에,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조선의 마지막 화원화가였던 안중식이 1915년에 조씨 형제들의 요청으로 그린 <영광풍경> 속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 이 작품이 실경 풍경임을 입증하는 사료로서 미술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가옥의 전체적인 배치형태를 살펴보면, 진사댁을 중심으로 서쪽편에 공지를 사이에 두고 참봉댁이 위치하고 있다. 본래 이 공지에는 박사댁이 있었으나 소실된 뒤 현재까지 그 터만 남아 있다. 소유자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진사댁-박사댁-참봉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건립 당시 매우 독특한 배치 방식을 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진사댁은 전형적인 호남지역의 상류주택 형식을 취하면서 서도 곳곳에 근대시기 생활상의 흔적이 남아 있다. 먼저, 가옥의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안대문채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는 여자들을 위한 공간인 안채, 남쪽으로는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가 자리 잡고 있어 남, 녀의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안채와 사랑채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소위, 튼ㄱ자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일반적인 배치형태라 할 수 있다. 안채는 본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채는 정면 7칸, 측면은 전·후 퇴칸이 있는 3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정면 좌측 2칸의 앞으로 정면3칸, 측면 2칸의 부속채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다. 좌측 2칸의 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의 전면과 우측면으로는 툇마루를 설치하여 실내에서 각 방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측면 툇마루에 미서기 유리 창호를 달아내어 겨울철에도 실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근대시기의 한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며, 무엇보다도 소유자의 증언대로 안채 뒤편으로 목욕간이 있었던 것은 근대시기 한옥의 변모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대칭되게 안대문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서쪽편으로 젓갈을 숙성시키는 창고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영광이라는 지역적인 특징과 함께 근대기 생활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사랑채는 안대문채 남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로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4칸, 측면2칸 규모의 팔작지붕으로 정면 4칸 중 우측 3칸의 전면에 툇마루를 놓고 동쪽 측면으로는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창호는 모두 세살 창호를 사용하였으며 정면 맨 우측 1칸에서는 창호 아래에 머리를 설치하지 않아 출입을 편리하게 하였고 정면 맨 좌측 1칸은 상인방 위에 광창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부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통가옥의 사랑채 구성요소와 다른 점을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진사댁의 사랑채는 소유자의 생부인 조형규가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곳인 만큼 근대병원의 입원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술한 내용과 같은 일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적인 큰 변화 없이도 새로운 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한옥의 가변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사랑채가 의원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은 상인방에 붙여진 입원실 번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유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랑채 동쪽편으로 대칭되게 3칸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입원실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공간이 근대시기에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랑채 남쪽편으로는 비교적 넓은 공터가 있는데 소유자의 증언에 의하면 본래 이곳에 중문채가 있었으며 또한 그 앞쪽으로 바깥대문채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 그 자리에는 콘크리트 건물의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진사댁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참봉댁은 안채와 곳간채, 문간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채는 본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고 본채는 정면 4칸, 측면은 전면에 퇴칸이 있는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의 정면 좌측 1칸 앞으로는 정면3칸, 측면 2칸의 부속채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는 진사댁의 안채와 같이 ㄱ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실의 구성방식에서는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 우에 방을 놓고 좌측 방의 정면으로 방과 부역을 달아내고 있는 등 진사댁 안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청과 우측 방 전면에는 툇마루 설치하였으며 대청과 툇마루 사이에는 4짝 미서기 유리 창호를 달아내어 겨울철에도 대청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역 상부에는 방에서 직접 통하는 고미다락을 설치하여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부역은 연등천정으로 마감하여 상부 가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때 외기 중도리의 왕지부분에 달동자를 설치한 것은 집의 격식을 높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진사댁과 참봉댁 모두 전반적인 가옥의 배치와 규모, 개별 건물의 형태와 구조 등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어 향후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안채, 사랑채, 대문채 등 개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위치한 백학리 일대는 영광읍의 중심부로서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소유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한옥 숙박 및 테마공원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홍보, 교육하는 테마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활용적 측면에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위치한 백학리 일대가 영광읍의 중심부로서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향후 가옥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근대시기 건립된 한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이 살림집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에서와 같이 한옥을 근대 병원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없다. 또한, 최근 들어 병원시설을 겸비한 일본식 가옥에 대한 등록 신청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역사적 자료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현존하는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 근대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진사댁의 경우 근대시기 의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의원으로 사용되었던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현 소유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므로 근대 한옥 의원의 가치와 의미에 기초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동일한 경내에 위치한 참봉댁은 건립 취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으므로 시·도문화재자료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13.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화여자대학교
- (2) 대상문화재명 :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체육관 A동)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소유자 : 학교법인 이화학당
 - 수량 및 면적 : 1동 / 연면적 899.51㎡
 - 건립시기 : 1935년
 - 구조 : 석조 / 목조트러스
- (3) 신청내용 :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의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11. 8.)>

- 문화재위원 ○○○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며, 체육관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한국 고등교육시설에서 가치에서 볼 때 시지정은 물론 사적지정도 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이 건축의 전체적인 외관과 내부 마감 그리고 공간구조 모두가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
 - 1935년 감리교 부인선교부의 한국 사업간사 토머스(Mrs. Thomas)여사의 업적을 기념하며 세워진 건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노후화는 심하지 않음.
- 문화재전문위원 ○○○
 -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근대시기 조적조로 지어진 학교시설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기 교육의 역사적 현장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5명, 원안가결 5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체육관A동) (구)
2. 용 도 : (현) 무용실 (원) 체육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이화여대길 52)
4. 소유자 : 학교법인 이화학당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조(석재) 및 목조트러스
 - 준공일 : 1935년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817.2㎡
 - 층수(높이) : 3층(지하1층, 지상2층)

6. 조사자 의견(2016.10.26.)

<문화재위원 ○○○>

1) 개요

미국인 선교사로 일본에서 건축가로 활동한 윌리암보리스의 설계로 지어졌다. 최초에는 체육관으로 건축되었으나, 현재는 무용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축 당시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관리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1930년대 이땅의 고등교육시설에서 주로 채택되었던 스퀘어원도우 튜더식 고딕의 양식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고딕건축의 대표적인 구법이자 의장적 특징인 애슬라쌍기도 제대로 사용된 완성도 높은 튜더식 고딕건축이다.

근대기 고등교육시설은 물론 초중등교육시설에서도 강당 등은 종종 지어졌지만, 체육관이 고딕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예는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교육시설의 유형측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건축이다.

이화여자대학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1960년대 연접하게 체육관이 건축되었는데, 인접한 체육관 역시 시대적 특성을 잘 갖추면서 고딕건축양식의 체육관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신축 당시의 건축양식은 물론 공간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지하층 시설의 일부에서 실내 마감재가 바뀌고 개구부와 출입구 등에서 일부 변형이 있지만, 주요한 부분은 원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주 진입계단은 물론 2층의 발코니 등은 거의 완벽하게 원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관람석에 해당하는 2층의 파이프를 이용한 발코니 난간은 물론 객석은 재료와 형태의 보존이 매우 양호하다.

점검구를 통해서 확인한 지붕의 목조트러스도 매우 양호하다.

주진입레벨의 바닥은 화강석으로 바뀌었지만 징두리벽과 계단 등은 원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징두리벽에서 습기에 의한 부식이 확인되지만 원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다.

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노후화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보존관리가 매우 양호하며 주변 여건도 양호하다. 주출입구가 인접 대지보다 낮아 일반적으로는 습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체육관의 경우 통풍이 잘되어 습기로 인한 피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되어 주변의 수목이 크게 성장해있고, 건물의 높이를 위협하는 수목이 그늘을 만들어 건물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로 가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현재 건물의 보존관리와 사용 상황이 매우 양호하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이화여대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파이퍼홀 등과 비교할 때 가치다 떨어지지 않는다. 체육관은 본관 및 대학원(구 음악관)과 함께 사적 지정을 추진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며, 체육관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한국 고등교육시설에서 가치에서 볼 때 시지정은 물론 사적지정도 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이 건축의 전체적인 외관과 내부 마감 그리고 공간구조 모두가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관(체육관 A)은 1935년 건축되었다. 이 건축물은 감리교 부인선교부의 한국 사업간사 토머스(Mrs. Thomas)여사의 업적을 기념하여 세웠다. 이후 인접하여 체육관 B, 체육관 C가 인접하여 차례로 증축되었다.

무용관(체육관 A)은 지하1층(128.93,51㎡) 1층(510.9151㎡), 2층(259.6751㎡)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석조건물로 지붕구조는 목조 트러스이다. 지붕재는 합석 패널붙이기, 계단실 및 각층 바닥 등은 목재장선구조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주요구조가 석조(석조 구조)이며 바닥 및 지붕은 목조이다. 1930년대 외국인에 의해 설계된 종교, 의료 학교건축의 아메리칸 콜로니엄 스타일(정창원, 2000. 9)의 한 사례로 판단된다. 이 건축물의 설계자로 연구된 보리스 건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보리스(William Merrell Vorries, 1881-1964)는 1932년부터 1941년에 이르기까지 이화여대 캠퍼스 건립사업에 참여해 본관, 체육관, 음악관 등 총 10여 개의 건물을 설계 및 건축했다. 이화여대 캠퍼스는 보리스 자신이 각별한 애착을 갖는 작품이었으며 설계 당시에 한국인 기사를 둔 '보(오)리스 京城건축사무소'라는 경성지사가 있었다. 경성사무소 직원 중 강운(姜琄, 1899-1975)은 보리스가 가장 신임했던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강운은 1930년대 일본유학 및 활동으로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이화여

대 건축사업 현장감독을 지냈으며, 태화사회관 건축시부터 ‘보(오)리스 京城건축사무소’의 주임으로 근무했다. 강운은 이후 독립해 남대문교회, 한국신학대학, 부산대학교 도서관, 중앙대학본관 등을 설계했다.

강운은 1933-1935년까지 이화여전의 새 캠퍼스에 본관 등 4개의 교사를 준공시켰다. 1935년 5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대현리 캠퍼스 현장에서 ‘이화여전 신교사 봉헌식’이 열리는데 이때 강운은 건축현장 감독으로 소개된다. 보리스도 참석하였다. 이날 준공된 건축물은 본관(Pfeiffer Hall), 음악당(Case Hall), 대강당(Emerson Hall), 체육관(Thomas Gymnasium)이 었고 이들 건축물은 1933년 정초식을 하였고 이날 준공된 것이다. (김정동,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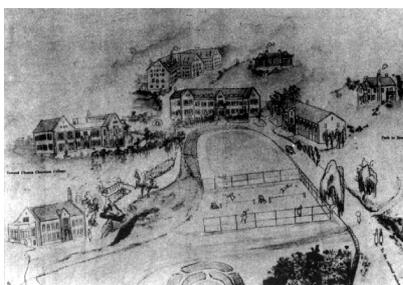
건축공사는 마종유(馬種濡)와 중국인 청부업자 왕공온(王公濫)이 했다. 마종유는 <조선과 건축>의 1926(대정15)년의 조선건축회 회원명부에 ‘토목건축재료상 병 토목건축청부업’의 영업종으로 ‘개성군 송도면 만월정’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개량전통주택(도시형한옥)건설업자는 청부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마종유는 개성에서 영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또한 1937(소화12)년에도 동일하다. 그는 마공무소(馬工務所)대표로 있었다.(김란기, 박사학위 논문, 1989)

강운은 이외에도 이화여전 캠퍼스에 4동의 건축물을 준공했는데 1936년 5월 30일에 준공된 기숙사, 보육원, 영어실습실, 가사실습실 등이 그것이다. 강운은 이날 건축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김정동, 2008)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관(체육관 A)은 보리스가 설계하고 중국인 청부업자 왕공온(王公濫)이 공사하였으며 현장감독은 강운이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노후화는 심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출입문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보수 수리가 필요하다. 또한 후면에 빗물 등의 침투가 우려된다. 배수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붕 속 트러스 구조도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무용실로 사용되면서 많은 전기설비 등에 의해 복잡한 편이다.



<그림 26> 1936년 이화여전 캠퍼스플랜, 보리스 작성(김정동 2008). 오른쪽의 건물이 체육관으로 판단된다.



<그림 26> 강운의 생전 모습. 1956년 경에 이화여대 강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김정동 2008)



<그림 26> 강운 가족(1935년 이후)(김정동 2008)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캠퍼스 안에 존치되어 큰 문제없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이미 기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음.

다. 기타사항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상기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참조.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내에는 등록문화재 제14호로 등록된 ‘파이퍼홀(본관, 1935년 건립)’이외에도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토마스홀(체육관A동, 1935년 건립)’을 비롯하여 ‘대학원관 중강당(1935년 건립)’, ‘진선미관(1936년 건립)’, ‘대학원 별관(1936년 건립)’, ‘영학관(1936년 건립)’, ‘아령당(1936년 건립)’ 등 동 시기 건립된 역사적 건축물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이들 건물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전이 정동에서 신촌 일대로 옮기게 되면서 신축된 것들로 외부형태를 구성함에 있어 고전주의 양식을 모티브로 하는 등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인 보리스(William M. Vories, 1881~1964)가 운영하였던 ‘보리스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는 보리스건축사무소 일원으로서 한국인 건축가 강윤(姜允, 1899~1974)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내에는 모두 3동의 체육관 건물(체육관A·B·C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중 ‘토마스홀’로 불리는 체육관A동이 이번 등록 신청된 것이다. 『근·현대 체육시설 일제조사 연구용역(문화재청, 2015)』에 의하면,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시설 중 가장 오래되고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건축조형미가 뛰어나 보존되어야 할 근대건축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1963년 체육대학 내에 무용과가 신설된 이후 줄곧 ‘무용관’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817.2m² 규모로 외관상 근대시기 학교 건물에서 보여 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인 ‘파이퍼홀’과 비교할 때 서로 유사한 건축양식을 보이고 있다. 벽체는 조적조(석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돌을 쌓아 축조한 것인지 아니면 돌을 쌓고 그 뒤에 보강재(콘크리트 등)를 채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지붕은 목재 트러스를 전·후 벽체에 가로질러 설치하였고 체육관 특성상 실내에 넓은 공간(15m) 확보에 따른 구조적 보강을 위해 양 끝단에 현치 형태의 구조물을 덧대어 보강하였으며 이에 맞춰 외벽면에는 별도의 부축벽을 세웠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경계에는 화강석으로 수평 돌림대를 두어 층을 구분하였는데 수직 방향의 부축벽과 입면상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수직 창호의 상·하부에는 화강암 창대석을 놓아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창틀 좌·우면에는 화강석을 들쭉날쭉한 패턴으로 쌓아 의장적인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데 ‘파이퍼홀(본관)’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사적 제276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정면 현관의 상부에는 소위, 고전주의 건축양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첨두아치 대신 튜더아치(Tudor Arch)를 사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장식하고 있다. 지하층에는 보일러실이 있

었으나 현재 연도는 훼손되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골뚝은 건물 좌측면에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토마스홀(체육관A동)이 오랫동안 무용관으로 사용됨에 따라 방음문 설치와 천정의 무대조명, 벽체에 매입된 냉난방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에서 다소 변화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건물의 구조와 형태, 내부 마감재 등은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간이 현재에도 무용연습실과 교수연구실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상태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초기 이화학당의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기 등록문화재인 파이퍼홀(본관)관 함께 이번 등록 신청한 토마스홀(체육관A동)를 비롯하여 동 시기에 건립된 다수의 역사적 건축물을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학교 관계자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학교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미미 할 것으로 보인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등록문화재인 파이퍼홀(본관) 및 사적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사적 제285호)’, ‘서울 연세대학교 스티븐관(사적 제275호)’ 등과 비교할 때 근대건축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등록문화재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근대시기 조적조로 건립된 학교 시설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기 교육의 역사적 현장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시기에 건립된 다수의 건물 역시 동일한 시대적 배경과 건축적 특징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 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14.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 대상문화재명 :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22
 - 소유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133.71㎡
 - 건립시기 : 1952년(추정)
 - 구조 : 석조 기와
- (3) 신청내용 :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의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11. 7.)>

- 문화재위원 ○○○
 - 6.25 전쟁 당시 세워졌던 50여 채 병동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니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교정 내에 있었던 병동건물과 인근에 전사자 화장장(파혜)과 의무대 기념비(현존) 등, 관련시설물들이 있었던 곳에 대한 지표조사를 행하여 유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본 건물과 연관하여 과거의 의무부대 상황을 파악할 수 그거들을 찾아내어 장차 문화재 등록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문화재전문위원 ○○○
 -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군사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주도 육군제1훈련소 군사시설의 소수 현존사례 중 하나이자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한 현존사례로 한국전쟁사, 제주지역사, 군의료사 등에서 높은 역사적 의미

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대정면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군사유적 등록문화재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던 반면에,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다는 차별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단, 등록을 위해서는 군훈련소 및 의료시설로서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 활용계획의 수립과 보완이 필요하며, 등록 후에는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은 제주지역의 대표적 건축 요소이므로 원형복원과 지속적 보존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

-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됨에 따라 그 다음해인 1952년에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현재의 위치에 주둔한 98육군병원의 병동으로 제1훈련소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98육군병원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치료를 위한 주민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5명, 원안가결 5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제주 대정여고 실습실 (구) 육군 98병원 병동

2. 용 도 : (현)교육시설 (원) 육군병원

3. 소재지 : 제주특별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22

4. 소유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5)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석조, 목조 트러스 위 기와잇기
- 준공일 : 1952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33.71㎡, 연면적 133.71㎡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11.08.)

<문화재위원 ○○○○>

1) 개요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었다. 이어서 의무대와 전쟁 부상병 후송병원을 겸하여 설치된 육군98병원이 주둔하였다. 6.25 당시 50여개의 병동이 이어졌는데 1964년 3월 이곳에 재정여고가 개교하면서 병동 건물들은 차례차례 철거되고 현재 본 건물 한 채가 남아 있다. 의무대가 주둔했던 당시, 군인뿐 아니라 제주도민과 피난민도 치료를 위하여 이용하였던 군 시설로, 내부는 변형되었으나 외부는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줄기초 위에 석재로 외벽을 쌓고 지붕은 간단한 트러스 구조를 올리고 기와를 올린 전형적 군 막사 형태의 건물이다. 육지에서 격렬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제주도에서는 부상치료와 잠깐의 회복을 위한 시설이 이 일대에 건립되어 있음을 전해 주는 구조물로서 최소한의 장비와 재료로 단시간에 건립이 가능하고 유지 관리에 편한 기능적 건물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외부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는 교육시설로, 시기에 따라 알맞게 개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형을 상실하였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고등학교 교정 내에 위치하며 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한정된 사용자와 공간 내에서 크게 훼손에 대한 염려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학교의 교육시설로 계속 사용하거나, 6.25 때 의무대가 설립될 당시의 상황을 이곳에서 배워 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교육시설로 할 것인가, 옛 군 시설 때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실 또는 기념관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청과 군사 관련 기관 사이에서 잘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6.25 전쟁 당시 세워졌던 50여 채 병동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니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교정 내에 있었던 병동건물과 인근에 전사자 화장장(파훼)과 의무대 기념비(현존) 등, 관련시설물들이 있었던 곳에 대한 지표조사를 행하여 유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본 건물과 연관하여 과거의 의무부대 상황을 파악할 수 그거들을 찾아내어 장차 문화재 등록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제주 대정여고 실습실

*구 육군 98병원 병동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조사대상 건물이 위치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면 지역은 본래 일제강점기 1930년대부터 일본군 군사기지가 조성되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군사시설로 활용되면서 1950년대 대규모 군사기지를 형성하였던 지역.
- 한국전쟁 당시 병사를 양성할 훈련소가 급하게 필요해 1951년 1월 대정면 모슬포 지역에 육군제1훈련소(통칭 강병대強兵臺, 일명 모슬포훈련소)가 면적 198만㎡(약 60만 평), 병력 10만명 수용 규모로 창설된 후 1956년 1월 해체될 때까지 약 50만명의 병력을 배출.
- 한국전쟁 당시 전선에서 또는 훈련소에서 부상당한 많은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육군제1훈련소 의무참모실에서 제98육군병원을 창설하였으며 195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52년 6월 9일에 완공.
- 제98육군병원은 당시 50여동의 건물과 주변에 화장터가 있었으나 1956년 폐쇄 후 방치되던 중 1964년 대정여고가 그 자리에 설립되면서 교사로 활용되다가 대부분이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조사대상 건물만이 유일하게 현존.
- 제98육군병원은 의료시설이 매우 빈약하였던 당시 제주도 상황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많은 병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치료하며 제주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 현재 대정면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서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10호),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병커(제312호),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제313호), 제주 모슬봉 일제군사시설(제314호), 제주 이교동 일제군사시설(제315호),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동굴진지(제317호)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 또한 현재 대정면 일대에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시설로서 남제주 강병대교회(제38호),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제409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제410호)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1952년 제주 서귀포시 대정면 모슬포 지역에서 창설된 제98육군병원의 병동 건물로 당시 건설되었던 50여동의 건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
-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 수 없지만 1951년 창설된 육군제1훈련소 소속 의무참모실이 제98육군병원을 195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1952년 6월 9일에 완공, 창설 하였으므로 당시 건축된 것으로 추정 가능.
- 1964년 대정여고가 현 위치 제98육군병원 자리에 개교하면서 초기에 제98육군병원 건물들은 개축하여 일부 교사로 활용되다 이후 대부분이 철거되었으며, 현재 조사대상 건물만 유일하게 현존.
- 기본적 건축형식은 장방형 평면을 구성하고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외벽을 쌓은 후 상부에 박공지붕을 가설하고 내부에 통칸(通間) 형식의 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한 건축형식의 기능주의적 소규모 건물.
- 벽체 구축 등 전반적 건축형식은 이 지역에서 동시기에 건축된 한국전쟁 관련 군사시설 건물(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 강병대교회, 등록문화재 제409호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등록문화재 제410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및 인근의 남제주 구 대정면사무소(등록문화재 제157호, 1955년 건축)와 유사.
- 조사대상 건물은 단순한 건축형식의 소규모 건물로 그동안 내외부 일부가 증축되고 개조되었지만,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원형복원도 가능한 상태.
- 한국전쟁 당시 군사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면 지역의 대규모 군사시설 중 현존하는 소수 사례 중 하나로 한국전쟁사, 제주지역사, 군의료사 등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건물.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2년 제98육군병원 창설 당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1956년 병원 해체 이후 방치되던 중 1964년 그 자리에 대정여고가 설립되면서 다른 건물들과 함께 임시 교사로 개축,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
- 그동안 대정여고 다목적실로 사용되며 우측면에 부속실이 증축되고 정면 입면 등 내외부가 개보수되었지만,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을 비롯하여 건축원형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유지.
- 그동안 다목적실로 활용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는 다소 미흡하며, 내부는 개보수되어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지만 외관은 그동안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보수가 필요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조사대상 건물은 현재 대정여고 부지내에서 교사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록시 문화재 보존관리를 저해할만한 주변환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육군본부의 요청에 의해 소유주인 제주도교육청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 소유주, 관계기관, 지역사회에서 문화재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등록시 문화재로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등록신청서에 소유주 제주도교육청은 등록 후에도 기존 용도인 다목적실로 지속

적으로 사용하며 학생 및 학부모 교육행사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구체성이 미흡하고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활용 계획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계획보다는 한국전쟁 당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군사시설로 역할을 하였던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한 현존 건물유적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함.
- 또한 대정여고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상 공공적 개방 및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적 개방 및 접근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로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육군제1훈련소 유적으로 대정면 일대에 현존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강병대교회, 제409호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제410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근대유적이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군사의료시설 관련 등록문화재로는 구 진해해군통제부 병원장사택(제193호), 구 진해요항부 병원(제197호)이 있으나 이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시설로 건축된 반면에,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군사시설로 건축되었다는 차별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 등 전반적 건축형식은 대정읍 일대에서 한국전쟁 당시 건축된 군사시설 건물(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강병대교회, 등록문화재 제409호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등록문화재 제410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및 인근의 남제주 구 대정면사무소(등록문화재 제157호, 1955년 건축)와 유사.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군사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주도 육군제1훈련소 군사시설의 소수 현존사례 중 하나이자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한 현존사례로 한국전쟁사, 제주지역사, 군의료사 등에서 높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대정면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군사유적 등록문화재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던 반면에,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다는 차별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단, 등록을 위해서는 군훈련소 및 의료시설로서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 활용계획의 수립과 보완이 필요하며, 등록 후에는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은 제주지역의 대표적 건축요소이므로 원형복원과 지속적 보존이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동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됨에 따라 그 다음해인 1952년에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현재의 위치에 주둔한 98육군병원의 병동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당시에는 50여개의 병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1964년 3월 대정여자고등학교가 이곳에 개교함에 따라 대부분의 병동 건물이 철거되고 현재는 1동만이 남아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동 건물은 제주석(현무암)으로 벽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 기와를 올렸으며 외부 벽체에는 부축벽을 설치하여 벽체를 지지하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실내 역시 별도의 구획 없이 하나의 개방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지붕 구조는 천정 마감으로 인해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지만 트러스 구조로 추정된다. 다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98육군병원 내 대부분의 병동 건물이 제주석으로 벽체를 쌓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형태로 기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건물 역시 비교적 건립 당시의 외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내부 마감재와 정면 출입구 부분에 별도로 설치한 구조물, 우측면의 콘크리트조 건물은 이후에 증·개축된 것이며, 창호 및 출입문 역시 본래의 형태와 마감재가 아닌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실내 마감재 교체와 정면 출입구 부분에 별도로 설치한 구조물, 우측면의 콘크리트조 건물 등 이후에 증·개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대정여자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학교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상태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본래 98육군병원 병동 건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소유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오늘날에도 대정여자고등학교 시설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역사교훈여행(다크투어리즘)의 역사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등록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동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대정지역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시설(제1훈련소 정문, 지휘소, 강병대 교회) 이외에도 과거 일본군들에 의한 수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므로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군 관련 시설로서의 등록문화재는 다수 존재하며, 또한 동 건물과 인접해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시설로 ‘남제주 강병대교회(등록문화재 제38호)’가 등록, 관리되고 있으나 군병원의 의무시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동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됨에 따라 그 다음해인 1952년에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현재의 위치에 주둔한 98육군병원 병동으로 인접해 있는 제1훈련소와 역사적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98육군병원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치료를 위한 주민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 건물은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 중요

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제주 구 98육군병원 병동’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15.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
 - 소유자 :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815.14㎡
 - 건립시기 : 1961년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신청내용 :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의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12. 22.)>

- 문화재위원 ○○○
 - 1960년대 초의 건축기술과 학교건축의 공간구성 등을 잘 담아내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구로서 동시대의 타 대학교 시설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재료 사용 등의 특징을 갖고 있음.
 - 또한 1961년 신축될 때 같이 지어진 현재의 본관, 헨리관, 식당은 약간의 증개축, 변형이 가해졌기에 등록신청에 제외하고 원형 대부분이 남아 있는 브레디관만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건물들도 증축된 부분 외에는 원형이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음.
 - 특히 본관의 지하층은 건립당시에는 쉽게 만들지 못했던 공법과 상당히 넓은 지하면적 확보, 드라이 에어리어 마련, 방수와 구조구법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유구들을 하나의 보존대상 건물로 확정하여 같이 등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문화재전문위원 ○○○

- 브레디관은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적벽돌을 마감한 ‘ㅅ’ 자형 건물로 1960년대 기숙사의 독특한 구조와 당시의 생활 형태를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세면실과 화장실, 계단실의 구조, 방서의 역할을 위해 만든 옥상수조 등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징임.
- 또한 브레디관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건물에 대하여도 등록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브레디관이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와 함께 미국 출신 브레디 신부가 기금을 모금하고 호주 출신 신부(미상)의 설계를 통해 한국인이 시공하였다는 독특한 건립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정한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된 역사적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브레디관과 동시대에 건립된 헨리관, 본관, 식당의 경우에도 비록 후대에 일부 증·개축이 있었지만 원형의 모습은 간직하고 있으므로 ‘대전신학교’라는 근대문화유산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향후 일괄 등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5명, 원안가결 5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구) 대건신학교 브레디관
2. 용 도 : (현)천주교 광주대교구 부속시설 (원) 기숙사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쌍촌동)
4. 소유자 :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쌍촌동))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61년 12월 15일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660㎡, 연면적 1,980㎡
- 층수(높이) : 3층

6. 조사자 의견(2016.12.22.)

<문화재위원 ○○○>

1) 개요

1958년, 서울의 카톨릭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졸업생들만으로는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성직자 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한 교황대사(Lamgertini)가 지방에 신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1959년에 교황청으로부터 광주에 신학교 설립을 허가받았다. 이에 광주교구장 헨리 주교가 미국에서 학교부지 마련과 교사신축을 위한 모금을 하고 1960년에 부지확보, 1961년에 교사신축, 1962년에 신입생 모집, 신학교육 시작하여 대건신학교의 대교를 보게 되었다. 1994년에 교명을 광주 가톨릭 대학교로 바꾸었고 1998년 광주 가톨릭 대학교가 남평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고 이 건물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의 시설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기본 뼈대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하고 외벽을 붉은 벽돌 치장쌓기로 마감한 모더니즘의 건축이다. 원래의 용도가 기숙사였으며 현재까지도 기숙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평면은 Y자 모양으로 세 방향 윙이 만나는 중앙 부분에 공동화장실, 공동세면실 등이 있어 1960년대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아울러 이 기숙사는 건립 초기에 한 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마련하고 개인침상이 열지어 놓여 있게 하여 수십명이 큰 방에서 취침하게 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2인 1실의 침실로 구획하여 개별실들로 변화하게 되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외벽 창호는 원형이 잘 남아 있어, 방범 샷시, 모기장, 오르내리 창의 철물, 멈추는 장치 등이 변형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다만 개방형 공동침실에서 개별 침실로 바뀌면서 바닥과 내부 벽에는 일률적인 변형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비교적 한적한 캠퍼스 내의 시설물로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신학교가 이전한 뒤 교구청의 부속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모든 계획은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고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가톨릭 교구청 소속 제단체의 사무실을 위주로 공간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계획대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1960년대 초의 건축기술과 학교건축의 공간구성 등을 잘 담아내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구로서 동시대의 타 대학교 시설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재료 사용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이 학교 교사는 1961년 신축될 때, 이번에 등록 신청한 브레디관 외에 현재의 본관, 헨리관, 식당까지도 같이 지어졌다. 소유주는 브레디관 이외의 건물은 약간의 증개축, 변형이 가해졌기에 등록신청에 제외하고 원형 대부분이 남아 있는 브레디관만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건물들도 증축된 부분 외에는 원형이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다. 특히 본관의 지하층은 건립당시에는 쉽게 만들지 못했던 공법과 상당히 넓은 지하면적 확보, 드라이 에어리어 마련, 방수와 구조구법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유구들을 하나의 보존대상 건물로 확정하여 같이 등록할 것을 소유주에게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① 광주 구 대건신학교 교사
- ② 광주 가톨릭대학교 구 교사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신청 건물(건물명 ‘브레디관’)은 1961년 준공되었으며 광주가톨릭대학교 학생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1962년 ‘대건신학교’로 설립인가 되면서 신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다가 1998년 나주 남평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천주교 광주대구청 부속건물로 사용되어 왔다. 1994년 광주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캠퍼스를 이전하기까지 36년간 광주 및 대구관구, 청주, 수도권회 소속 신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여 사제로 배출되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다.

1961년 캠퍼스의 주요 건물(본관, 헨리관, 브레디관, 식당)이 완공되었는데 이들중에 브레디관이 기숙사동이다. 건물 전체는 호주출신의 신부(미상)가 설계하였고 시공은 지역사회의 건설업자가 맡았다. 건축 기금모금을 위해 미국의 브레디(Brady) 주교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붙여 브레디관(Brady Hall)이라 칭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건물배치는 본관을 북쪽에 정면을 두고 있으며 브레디관은 남쪽에 위치한다. 설계자가 호주출신이어서 무더운 계절인 여름철을 대응하기 위해 본관을 북향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청 건물인 브레디관은 본관에 연결된 ‘스’자형 평면을 이루는 3층 건물이다. 자습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여러차례 바닥, 내벽수리가 있었다.

<연혁>

- 1961.12.15. 학교설립 준비완료, 이사장 헨리(Harold W. Henry) 주교
- 1962.03.07. 대건신학교 설립인가, 초대 교장 박후버(Andrew H. Bachhuber) 신부
- 1984.05.04. 교황 요한바오로2세 대건신학교 방문
- 1994.03.01. 광주가톨릭대학교로 교명 변경
- 1998.01.06. 나주 남평 교사로 이전
- 1999.04.09. 광주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개원
- 2014.07.08.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으로 개원
- 2014.08.11. 천주교광주대구청으로 변경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브레디관은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슬라브 구조이다.

평면은 ‘ㄸ’자형으로 중앙복도를 따라 좌우측으로 각 실이 배치되어 있다. 초기에는 넓은 공간이었으나 건물의 용도에 따라 중앙복도와 칸막이를 설치하여 자습실과 침실 등의 공간을 만들었다. 평면상의 ‘ㄸ’자 중앙에는 홀을 두고 화장실, 휴게실, 창고로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하였다.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며 실의 배분을 위해 복도와 칸막이벽을 설치하고 복도는 인조석물갈기, 침실은 마루널로 마감하였다. 각 실에는 라지에이터 난방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하였고 창문은 상하인방을 두고 그 사이에 4쪽의 창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밀어올림의 방식에 따른 철물사용이 근대건축의 특징을 이룬다. 건물의 지붕은 평슬라브 구조로 하절기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슬라브 상부가 수조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점이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계단은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조적으로 벽체와 난간의 구성, 수직창 배분 등이 근대건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드럽고 편안한 감을 준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브레디관은 건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넓은 공간의 공동자습실을 1-2인용의 소규모 침실을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초 칸막이 공사가 시행되었다. 중앙복도 형태의 평면구조로 변경하고 복도는 인조석물갈기로 마감하고 각 침실은 마루널을 마감하였다. 각 실의 칸막이벽과 마루널은 부분적으로 노후화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동세면실과 화장실은 196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설비배관이 노출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난방을 위한 라지에이터가 창가의 세면대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급수관의 교체와 동파에 의한 수리가 행하여졌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옥상 슬라브의 수조는 건물의 누수문제로 폐쇄되었고 배수를 위한 홈통은 남아있어 우수를 배출하고 있다. 창문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폐에 사용되는 철물과 방범쇠창살은 녹이 슬어있는 상황이다. 1층은 수장고와 평생교육원 연습실로 사용중에 있으며 상층부도 일부는 단체 사무실로 사용중이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마감과 설비가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있어 원활한 건물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건물의 활용 방법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캠퍼스로 사용되던 곳으로 전체적인 건물의 조화와 조경의 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광주대교구청의 입주로 현대교구장의 역사성 보존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점을 들 수 있다. 도심지 내부에 근대건축물과 녹지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광주대교구청과 시민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원의 설립으로 종교와 문화생성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 이상적인 환경이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브레디관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영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은 그 자체가 종교의 가치실현이 되며 활용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로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브레디관은 광주대교구청 부속건물로 과거 사제양성의 요람으로 교회사적 가치가 큰 장소이다. 이제 시민들의 내적외적인 수양과 교육의 장소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활용되는 공간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변건물과 연결된 지하통로와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영화촬영이나 설치미술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다. 기타사항

브레디관 뿐만 아니라 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 건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건축된 것이어서 이들 건물들을 동일한 문화재구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브레디관은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적벽돌을 마감한 ‘ㅅ’ 자형 건물로 1960년대 기숙사의 독특한 구조와 당시의 생활 형태를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세면실과 화장실, 계단실의 구조, 방서의 역할을 위해 만든 옥상수조 등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된다.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우선 브레디관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건물에 대하여도 등록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명칭 :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본 건물은 1961년 대건신학교 브레디관(기숙사)으로 건립된 건물이다. 대건신학교는 1994년 3월 1일 교명이 광주가톨릭대학교로 변경되었고 그 후, 1998년 1월 6일 오늘날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으로 캠퍼스가 이전함에 따라 ‘광주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4년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천주교광주대교구청’으로 사용 중에 있다. 오늘날 천주교광주대교구청 경내에는 대건신학교 시절 기숙사로 사용된 브레디관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건립된 본관(사무실, 도서관, 교실) 및 헨리관(기숙사), 식당 등의 기타 시설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 건물 모두는 호주 출신 신부(미상)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지하층을 통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전반적으로 브레디관은 1961년 건립 당시의 모습을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물 형태는 신학교의 초성인 ‘ㅅ’자를 이미지 한 형태로 크게 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 공간에서는 주변 지형의 경사에 맞춰 1층을 반지하 공간으로 처리하여 입면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숙사 시설인 만큼 내부공간은 대부분 생활공간으로 구성되었는데 1층은 체력단련장과 휴게실, 2층과 3층은 자습실과 공동숙소로 사용되었다. 2층과 3층에서는 세 영역이 만나는 ‘ㅅ’자 중앙부에 홀을 두고 공동화장실, 세면장, 휴게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배치한 독특한 평면의 구성방식을 보이고 있다. 건립 당시 2층·3층은 모두 개방된 공간이었으나 1970년대에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해 가변성 있는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 우에 각각의 실들을 일렬로 배치하였다. 건물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며 각 층의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를 하였으나 2층·3층의 각 실들에 한해서는 슬라브 위에 직접 장선을 놓고 장마루를 깔았다. 외벽은 붉은 벽돌로 치장 쌓기를 하였고 내벽은 몰탈 또는 회반죽 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창호는 위, 아래에 창대석을 놓고 그 사이에 목재 창호를 설치하였는데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나 건립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건물 옥상에 일정한 양의 물을 채워 실내온도를 낮추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옥상부에는 우수 배수를 위한 홈 구멍 이외에 파라펫 하부에 일정한 높이의 배수구멍이 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실내 벽면 모서리에도 배수관 시설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수량 유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일부 바닥 마감재 등의 교체가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건립 당시의 형태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활용 등을 감안할 때 화장실 설비(배관, 방열기 등), 목재 창호, 바닥 마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기숙사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소유자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이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므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브레디관은 천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 천주교 관련 유물 보관 수장고 및 관련 단체 사무 공간, 평생교육원의 학습장(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서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오늘날에도 브레디관이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의 사제양성을 위한 요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등록문화재가 아닌 사적(제520호)의 경우 ‘서울 용산신학교’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

초의 신학교 건물로서 보존, 관리되고 있지만 과거 신학교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없으므로 브레디관이 갖는 건축사 및 종교사적인 가치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브레디관이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와 함께 미국 출신 브레디 신부가 기금을 모금하고 호주 출신 신부(미상)의 설계를 통해 한국인이 시공하였다는 독특한 건립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정한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된 역사적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레디관과 동시대에 건립된 헨리관, 본관, 식당의 경우에도 비록 후대에 일부 증·개축이 있었지만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대건신학교’라는 근대 문화유산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향후 일괄 등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광주 광주천주교대교구청 구 브레디관’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 광주시’와 구별을 위한 별도의 명칭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 고 사 항

16. 사적 및 등록관련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 사적 및 등록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사적289)	전남 목포	목포 시장	<p>[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 소위원회 심의</p> <p>○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p> <p>○ 가결조건</p> <p>- 1구역에서 5구역으로 조정 한 문화재 뒷면 도로쪽 부분 및 기존 2구역에서 1구역으로 조정 한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기준 조정을 반영함</p> <p>- 공통사항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건축물의 기존범위내 개·재축은 제외)”으로 함</p> <p>- 공통사항에서 대기오염 배출 시설 관련 사항, 질·성토 관련 사항, 매장문화재 관련 사항은 제외함</p>	조건부 가결	‘16.12.12
「대구 계산동성당」 (사적290)	대구 중구	대구 중구청장	<p>[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 소위원회 심의</p> <p>○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p> <p>○ 가결조건</p> <p>- 3구역에서 4구역으로 조정된 부분은 원래대로 3구역으로 함</p> <p>- 4구역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로 함</p> <p>- 공통사항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건축물의 기존범위내 개·재축은 제외)”으로 함</p>	조건부 가결	‘16.12.12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익산 나바위성당」 (사적318)	전북 익산	익산 시장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가결조건 -공통사항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회합”은 “건축물 최고 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 별 심의회합(기존 건축물의 기 존 범위내 개·재축은 제외)” 으로 함	조건부 가결	‘16.12.12
「구대구의학 전문학교 본관」 (사적442) 및 「구 도립 대구병원」 (사적443)	대구 중구	대구 중구청장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보류 ○보류사유 -추후 조정된 안을 제출받 아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함	보류	‘16.12.12
「독립문」 외 30개소 (사적31)	서울 서대문 외	문화재청장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가결조건 - 인천 답동성당의 1구역은 “개별심의회(원지형 보존)” 으로 함 - 「독립문」 외 30개소 사적 모두 공통사항에서 “건축 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 축물은 개별 심의회합”은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 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회합 (기존 건축물의 기존 범위내 개·재축은 제외)”으로 함	조건부 가결	‘16.12.12
「광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등록96)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총장	[지붕방수] ○대상위치 :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당해문화재) ○허가내용 : 현황 샌드위치판넬 마감 지붕재 위 도막 방수 - 방수재료 : 폴리우레아 - 방수면적 : 2,600㎡ ○허가기간: 2017.01. ~2017.06.30 ○허가조건 : 없음	허가	‘17.01.19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5명, 접수 5명